



[뿌리]의 옛말

두 발을 모아 뒀을 뜻구쳐 앞으로 나아가는 몸짓을 뜻하는 말로
높은 곳으로 오르거나 넘어서는 KT노동조합의 위상을 상징



(463-71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T | 031)727-2820 F | 031)727-4815



KT노동조합 소식지
Vol.5



Special Theme age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원장 신년 담화문

- People | 배우 오광록
- 클로즈업 | 전북지방본부
- 프로포즈 | 본사지방본부 국제전화국지부
- Focus | 2011년 KT복지제도



점심 식사 후 가볍게...
나른함이 밀려오는 오후 일과 중에 짹짹이...
커피 한 잔 씹들 하시죠?

자판기 커피에서, 점심 값에 맞먹는 테이크아웃 커피까지.
커피는 대표적인 기호식품으로 폭넓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기는 커피 한 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커피 산지는 주로 제3세계 저개발국가가 대부분입니다.
커피 농장은 다국적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해당 지역의 농민들이 노동자로 고용되죠.
그들이 피약벌 아래서 하루 종일 커피 열매를 따고 받는 임금은
우리가 마시는 글로벌 브랜드의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칩니다.

전 세계 소농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탄생된 것이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노동 여건,
수익 배분 등을 고려한 소비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공정무역은 전통적인 무역 관행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경쟁에서 밀려난 생산자들의 자립을 증진시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최근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공정무역 커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공정무역 커피로 바꿔 보는 건 어떠세요?

윤리적 소비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 '아름다운 가게' 와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에서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Vol.5

- 04** 위원장 신년 담화문
- 06** KTTU 활동일지

+ SPECIAL THEME

- 08** COVER STORY
- 12** TALK TALK TALK
- 16** PEOPLE
배우 오광록
- 20** REPORT
직장인을 위한 자기계발 노하우
- 22** ESSAY

+ KTTU FAMILY

- 24** **클로즈업**
전북지방본부
- 30** **프로포즈**
본사지방본부 국제전화국지부
- 36** **KTTU 동행**
퇴직사우 이종두
- 38** **해피투게더**
KT야구연합회
- 42** **행복한 오후**
즐거운 펜션 여행

+KTTU NETWORK

- 44** INSIDE 01
- 46** INSIDE 02
- 48** ISSUE
2011 대한민국 노동계
- 50** TREND
최신 IT 트렌드
- 54** FOCUS
2011년 KT복지제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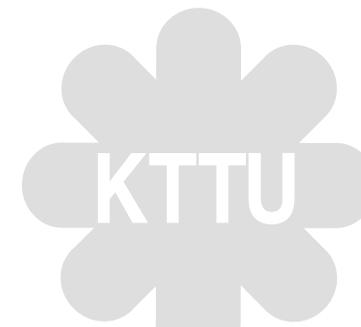
2011년, KT노동조합의 미래와 조합원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2만 5천 조합원 여러분,
침 없이 달려온 2010년을 보내고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기류에 놓여 있지만, 노동조합은 더 큰 희망을 품고 201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각오와 다짐을 가슴에 품으셨을 것입니다. 노동조합 10대 집행부 마지막 임기인 3년차를 맞아 조합 간부들도 지난 시간들을 거울 삼아 더 단단한 조직, KT노동조합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의 기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0년 통신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최전방인 현장은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무선 융합의 기세를 타고 스마트폰과 결합 상품 무한경쟁으로 과열된 통신환경 속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영업과 개통업무를 감수하며, 동시에 바뀐 인사평가제도에 적응하는 일이 만만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전국 12개 지방본부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는 반가운 미소도 있었지만 꾸짖음과 우려도 많았습니다.
2011년, 또다시 고용을 불안케하고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성한 소문들이 세밀부터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강한 KT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노동조합은 우리의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고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은 지난해, 28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일대 변혁을 시도했습니다. 전국대의원대회, 현장순회, 단체교섭과 같은 집행부 2년차 조합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동시에 KT노동조합만의 독창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3월 호스트운동을 선포했으며 동시에 신노사문화 공동선언도 하게 됐습니다.
호스트운동의 일환으로 임직원자녀 대상 무료인터넷교육, 장학사업, 올레 한마당잔치,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을 추진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노동운동에 있어 2011년은 큰 변화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 마지막 임기에 전임자임금지금금지와 복수노조허용이 맞물려 있어 자칫 조직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조직의 분란은 곧 현장의 혼란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조직안정화를 기반으로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합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새해의 첫 출발선에 선 지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조직 분

위기를 활기차게 쇄신하고 새 희망, 더 큰 도약을 만들어 갑시다. 노동조합은 현장 조직 안정화와 고용안정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다시 뛰겠습니다.
2011년 조합원 여러분 가정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하며, 희망의 노동조합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1일
KT노동조합 위원장 김 구 현

KTTU News

창립 29주년 기념식 및 추모제 개최

**김구현 위원장
“열사들의 뜻 이어받아 2011년 승리하자” 당부**

노동조합은 1월 6일(목)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노동조합 창립 29주년 기념식 및 열사 합동추모제를 열고 2011년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소한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는 전국 12개 지방본부위원장들을 비롯한 조합간부들과 열사 유가족, KT그룹노조 집행위원장 등 130여명이 참석해 열사들의 뜻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구현 위원장은 고 김낙성 동지, 고 김왕찬 동지, 고 오용철 동지, 고 김양중 동지, 고 윤준상 동지 등 5명의 열사에 대해 “이들의 헌신적인 삶과 용기 있는 투쟁이 있었기에 KT노동조합의 역사가 개척될 수 있었다”고 추모했다.

또한 “2011년은 더 큰 변화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집행부 마지막 임기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맞물려 있어 자칫 조직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어깨가 무겁지만, 열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이어간다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고 김낙성 동지의 동생 김낙은 유족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 해가 바뀌어 세월은 흘러가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열사들의 추억과 소중함은 변치 않는다”고 추모하고, “열사들의 신념과 용기를 본받아 2011년 KT노동조합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2011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대상 특강 실시

**2011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대상 특강 실시
KT노동조합 29년 역사와 호스트운동, 복지제도 등 안내**

노동조합은 1월 24일(월) 원주리더십아카데미에서 2011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201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는 김구현 위원장을 비롯해 허진 교육선전실장, 한호섭 복지국장 등이 강사로 나서 ▲노동조합 현황 및 편제 ▲2010 활동정리 동영상 시청 ▲노동조합 호스트운동 ▲KT복지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강연을 시작하며 “KT신입사원이 됨과 동시에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를 얻게 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KT의 미래를 짊어질 여러분들을 만나 무척 설레고, 조합원이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회사생활의 모든 영역이 노동조합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노동조합의 29년 역사와 조직현황, 운영방식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강사로 나선 허진 교육선전실장은 많은 질곡을 겪은 1995년 이후의 KT노동조합 노동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집중 설명하고 △연간 주요행사 △일상 조합활동 △연대 △홍보 △호스트운동 등 노동조합 주요활동을 전달했다. 특히 허진 실장은 “노동조합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인 조합원 고용안정과 복지, 근로조건에 대한 책무를 최우선 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도 정기 지부대회 개최

**지부별 2010 활동사항 및 2011 활동계획 보고,
전국대의원 349인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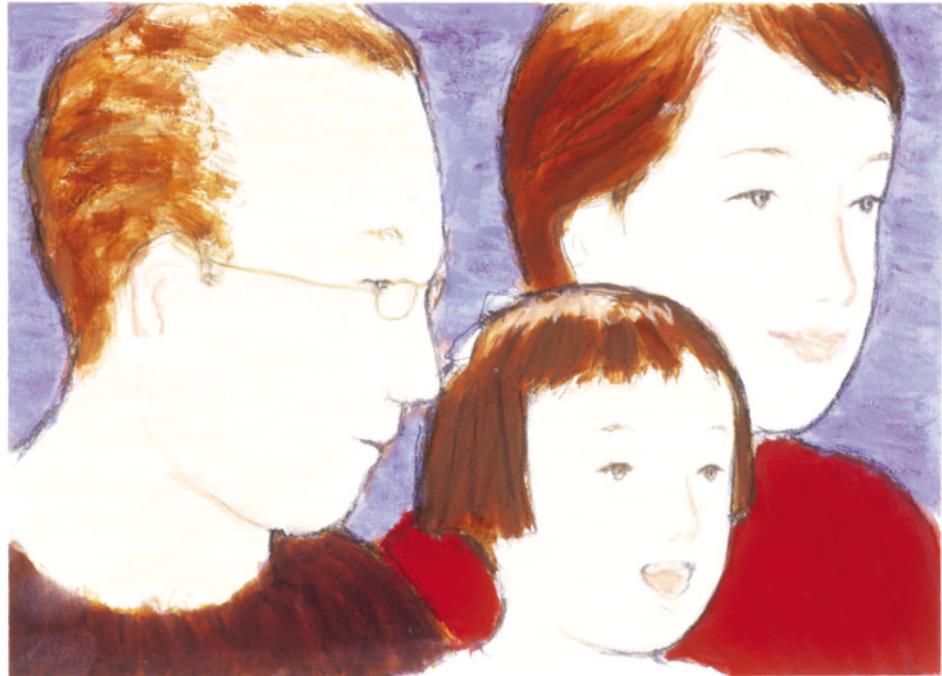
노동조합은 오늘 2월 9일(수) 전국적으로 지부대회를 열고, 각 지부의 2010년 활동사항과 2011년 활동계획을 해당 소속조합원에게 보고했다. 이어 2011년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대의원 선거를 진행, 총 349명의 전국대의원을 선출했다. 지난해 개정된(2010.10.25) 노동조합 규약 개정에 따르면, 제22조(구성) 전국대의원대회(3월 예정)는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전국대의원은 규약 제24조에 의거해 지부단위로 1명씩 선출하게 되어 있다. 전국대의원은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신임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발생 결의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한편, 지부대회에 이은 12개 지방본부대의원대회는 오는 2월 23(수)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본부대의원대회에서는 △2010년 활동보고 △2011년 사업계획 심의 의결 △2010년 회계감사 보고 및 결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1 전국대의원 선출 결과(총 349명)

- 강북지방본부(38명)**
정국향 강영국 변패원 조성현 이완재 김봉구 최재영 오화영 김영배 정호식 봉성재 마재범 김성락 양현주 박명환 김재영 김성배 김기준 박욱재 정병권 강석진 김홍호 장영일 안영훈 김현철 이석구 최원철 임광희 이형택 김상권 민병문 김진영 안길운 김명수 양오열 최정문 변대성 유명환
- 강남지방본부(34명)**
손병삼 조선미 전성옥 김세중 최영곤 최진우 남보희 김영희 이성구 강옥임 박성용 이관호 유병욱 김인자 맹중호 윤미애 정재갑 김태성 이강석 임병운 김구환 김두정 이봉근 심안섭 노수영 임병태 박용운 이왕영 민해홍 최완영 심수용 강광영 김용현 최민수
- 서부지방본부(37명)**
황병식 이형석 박명규 유희수 엄금용 이육만 고민석 임영환 이규만 김영준 서정구 이평수 최오희 김덕기 배세희 윤덕수 정호성 권영석 한상훈 정용철 황규삼 진영범 심현진 전승호 구인환 엄삼용 박중호 한동열 유삼열 권준무 방재혁 소병천 함 영 문상식 정재욱 현우기 박준홍
- 충북지방본부(12명)**
박석현 육후근 허현범 임영한 이용래 강신용 김지호 안병길 신철인 박만수 박대웅 김기성
- 부산지방본부(55명)**
박용화 손정근 이기동 이정왕 광희식 최형진 김우철 이종근 박진영 최원호 김문춘 심양진 이종민 이성철 안태선 문영진 허 근 김경철 윤종혁 심성열 김도성 마재오 경주현 정보근 박현욱 송성학 윤 해 이홍성 이장균 김휴정 김도형 정종철 김석계 윤대근 조중규 이용학 권영철 박찬기 정한상 정성환 최중흥 김태수 김만석 최영철 윤병선 강병석 성원기 정역근 최성규 최진욱 박승현 선병인 감동현 신한균 정재욱
- 대구지방본부(43명)**
하중열 장용하 권순철 이시달 김희진 김영탁 진정호 남내원 김수영 채한식 하재훈 최한길 홍용표 김중우 조창호 장재인 이정훈 오종표 황태중 서종석 전길중 윤용현 김동한 이상준 문명희 정한덕 오원식 임관수 송홍경 이진우 김문주 김영준 권문수 육상욱 이종학 이준석 정재철 권영훈 김명범 윤여필 김진건 정재윤 이주하
- 본산지방본부(27명)**
김상훈 허권철 양광식 이승운 이명옥 신명섭 김준근 고재락 김광태 김동준 강건일 김상현 정현호 문건성 이희찬 최호규 손정호 박춘우 최병도 차재현 장영환 박형운 오동필 박종민 임경재 염인식 최석봉
- 전남지방본부(27명)**
김준표 김갑식 신성일 방국연 김광수 정규진 박병영 박영식 전남재 김진욱 이춘민 허정원 박대식 권상진 박준호 김기현 서옥태 김영연 강경석 박 훈 문정희 윤희정 서정규 최승철 구창림 문동휘 김정필
- 전북지방본부(15명)**
임성한 심계섭 정진채 김주일 최동하 전상진 강상진 박춘호 임성진 김성달 최희천 최형엽 황병하 윤재현 김우승
- 충남지방본부(32명)**
김영식 김문상 현종민 정진호 이지연 양재돌 박도현 권만혁 이선호 심상준 박용춘 송상호 안상표 이학선 맹태영 장동인 김동겸 하대윤 오종광 엄양호 명노승 신승호 김용길 김영택 배재환 우명갑 임영필 조승민 김중수 윤석문 박찬국 목진평
- 강원지방본부(24명)**
고성규 조원열 김범수 조도현 왕재춘 송영식 조관형 김찬영 이한식 조강영 김동현 이영수 용재순 김재식 김규영 박재용 김효동 권태영 김 철 전찬일 이문영 최길영 김남진 김진섭
- 제주지방본부(5명)**
김경철 홍관표 고광범 현승기 송시경



행복하게 나이 들기

거스를 수 없다면 즐겨라! 시간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기

한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에 탤런트 노주현이 출연했다. 다양한 분야와 연령층의 연예인들이 모여 노주현의 전성기 시절을 회고하며 유행했던 인기가요를 함께 불렀다. 그런데 젊은 남자 가수의 기타 반주에 맞춰 흘러간 노래를 부르는 노주현의 박자가 한 템포 씩 앞서갔다. 그의 나이 어느덧 65세.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이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반주에 맞춰 노래할 때, 회식 날 노래방에서 열창하는 부장님의 리듬이 한 템포씩 앞서거나 반 템포 빠른 엇박자로 진행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목격하게 된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 감각이 빨라지기 때문인데,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실험 내용은 간단하다. 각각 10대, 20대, 40대, 60대로 구성된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60초를 헤아린 후 신호하게 한다. 결과는 예상대로다.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낸 사람은 60대,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사람은 10대 어린이이다. 같은 시간도 나이가 많을수록 짧게 느낀다는 의미다.

나이를 먹을수록 빨라지는 시간 감각

그렇다면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 감각이 빨라지는 이유는 뭘까?

첫째, 시간 감각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에 반비례한다. 수학적 해석에 따르면,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하루는 짧다. 10세에게 1일은 365일에 10년을 곱한 3,650분의 1이지만, 50세에게 1일은 18,250(50년X365일)분의 1이다. 즉 1/18,250이 1/3,650 보다 작으므로 50세의 1일이 10세의 1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셈이다.

둘째, 시간의 흐름은 경험치에 반비례한다. 아이들에게 세상은 늘 새롭고 신선한 자극이자 해석하고 탐구해야 할 대상이다. 넘치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모든 감각 수용체들이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시간은 새로운 자극과 신비로운 경험으로 충만하다. 한편 어른들의 시간은 이와는 정반대다. 인생 경험이 많아질수록 삶은 권태로워지고 권태는 무력감을 낳는다. 직장인들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하면서 긴 시간도 짧게 느낀다. 신선한 자극이 사라지면 시간의 의미는 조금씩 퇴색해 가기 마련이다.



어른도 때로 시간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행을 떠났을 때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과 색다른 경험을 할 때, 어른도 아이 같은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대상을 탐구하게 되고 시간은 조금 더 충만하게 느껴진다. 낯선 곳에서 보고, 듣고, 만나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한 자극이 되어 주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는 방법은 매 순간 희망과 도전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아이 같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아이처럼 헛바닥을 쏙 내민 백발의 아인슈타인, 그의 천진한 웃음은 아이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 '그냥 심심한 인생에 장난치는 거'라고 말하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아흔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짝사랑하는 여배우의 사진을 책상 말에 붙여둔 수필가 피천득, 신화학자 이윤기는 나이 들어서도 끝이 없는 창작열의 비결을 "내 마음속의 어린 아이에게 계속 말을 거는 것"이라고 했다.

나잇값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자기 안의 어린아이를 깨우는 것이 즐겁게 나이 드는 비결이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거나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분야의 취미를 가져보는 방법이 있다. 외국어공부나 악기, 춤, 그림 등 취미생활에 몰두하다보면 새로운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다.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무장한 아이들처럼 세상을 새롭게 탐구하고 도전할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매 순간이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온다. 나이 들 틈이 없는 것이다.



삶이 선사하는 의외의 기쁨들

나이에 비해 남다른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나이를 무색케 할 만큼 젊고 건강한 외모와 감각을 자랑한다. 대개 남다른 개성과 독특한 스타일로 자기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1965년생 가수 이승환은 올해로 47세를 맞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중년 아저씨'로 여기지 않는다. 그가 지닌 젊음의 비결이 단지 연예인으로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외모에 투자하기 때문일까?

그는 대표적인 연예계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로 유명하다. 특히 토이매니아(toy mania)로 새로운 장난감이나 프라모델에 열광한다. 집안에는 건담, 로봇태권V 류의 프라모델과 이소룡, 스파이더맨 같은 액션 피규어,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게임기와 로봇 강아지 등 기발한 장난감들로 가득하다. 전문 분야에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휘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를 가진 그에게서 나이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이렇듯 창조적이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는 직장인에 비해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가진 삶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롭게 창조적인 생활 방식, 아이 같은 순수한 열정과 도전정신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다. 생동감을 잃고 무묘한 일상의 반복에 지쳐갈 것인가, 생의 다양성에 기대감을 갖고 적극적인 태도로 삶에 임할 것인가. 선택은 자신의 몫이고 시간의 흐름 역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 KTTU의 나이는 지천명

KTTU는 1958년 3월 24일 대한체신노동조합 결성 이래, 올해로 만 53년이 되었다. 공자가 말한 '지천명(知天命)'을 넘긴 셈. 공자의 《논어(論語)》〈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나이에 대한 표현들을 알아보자. 공자는 일생을 회고하며 자신의 학문 수양의 발전 과정에 대해 "나는 15세가 되어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다. 40세가 되어서는 미혹하지 않았고 50세에는 하늘의 명을 알았다. 60세에는 남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고 70세에 이르러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라고 했다. 40세 : 불혹 [不惑]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된다.

50세 : 지천명 [知天命] 하늘의 뜻을 알아 그에 순응하거나, 하늘이 만물에 부여한 최선의 원리를 안다. 60세 : 이순 [耳順]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다. 70세 : 종심 [從心] 마음이 시키는 대로, 혹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도 규율이나 법도 등을 벗어나지 않는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줄 알았는데, 일상의 무게 딛고 고개 들어보니 어느새 지천명!

우리네 삶이 소중한 것은 '단 한번'뿐이라는 유한성 때문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시간의 반복을 채 백번도 보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녹록치 않은 직장생활을 이어가느라 분주했고, 적금붓고, 대출금 막고, 아이들 키우는 일상의 다단함을 한잔 술로 털어버리며 살아온 지금, 어느새 고개를 들어보니 그 유한한 시간의 절발을 훌쩍 지나왔다. 2011년, 나이에 숫자 하나를 더한 전북지방본부의 지부장 5명이 한 자리에 모여 '나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마음만은 이팔청춘인 그들의 생생한 토크 현장!

49

전북 사업지원센터지부 박재홍

50

전북 북전주지부 이종구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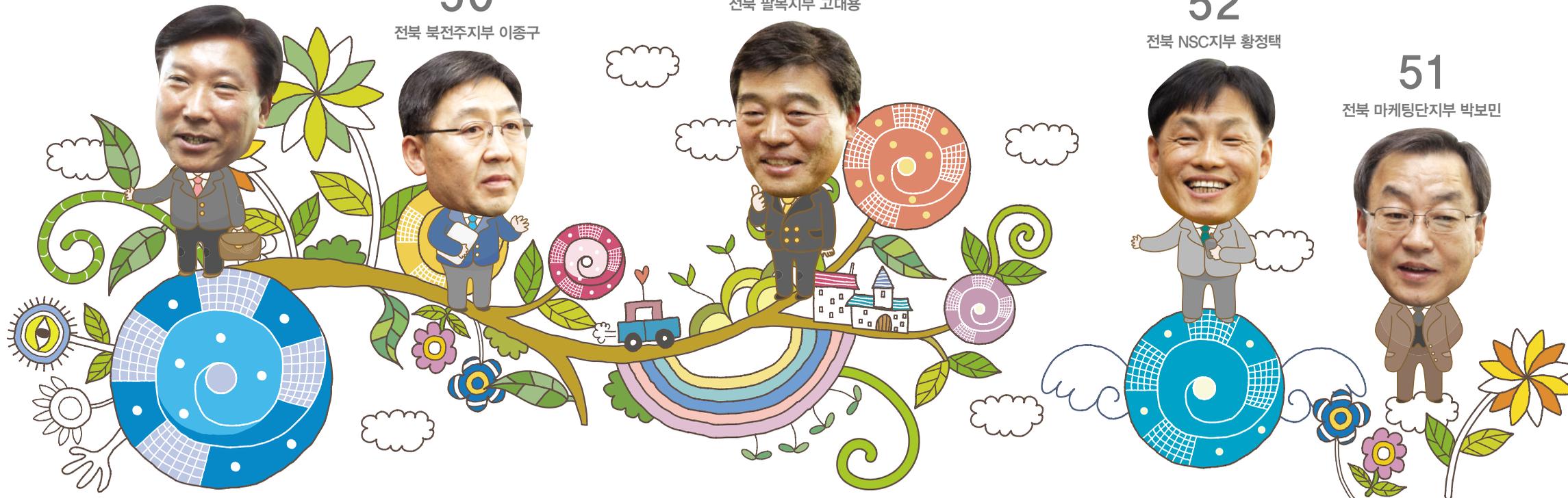
전북 팔복지부 고대용

52

전북 NSC지부 황정택

51

전북 마케팅단지부 박보민



“너도 나이를 먹어봐!”라는 어른들의 말씀에 콧방귀를 뀌던 시절이 다들 있으셨을 텐데요. 요즘 자신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하고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황정택 1남1녀에 딸은 벌써 시집을 갔지만,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전 옷을 입을 때도 청바지 등 캐주얼한 복장을 즐기는 편이에요. 그런데 또래 친구들을 보면 제가 나이를 먹었다고 느끼곤 하죠.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보면 하나같이 정장차림인데 나도 이제 저렇게 입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종구 전 운동할 때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제 마음가짐이 변했다기보다는 체력이 떨어지는 게 많이 아쉽죠. 젊은 친구들이 땀 뻘뻘 흘리는 걸 보면 뒤쳐지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요. 꾸준히 운동을 해도 따라가기가 어려우니... 아이를 늦게 가져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 시집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죠.

고대용 전 지부장 초임이에요. 지부장을 맡기 전에는 운동을 꾸준히 했죠. 힘도 넘쳤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얘기도 들곤 했어요. 그런데 지부장을 맡고 나서는 운동을 쉬어서인지 흰머리도 갑자기 생기고, 거울을 보면 제법 나이가 들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IT쪽 일을 해서 외근이 잦았는데 전과 달리 힘에 부친다는 느낌도 들어요.

박보민 요즘 나오는 노래를 거의 못 알아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들이 아직 대학생, 고등학생이라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소녀시대 멤버들의 이름을 다 외울 정도였으니까요. 친구들을 만나면 최근 연예뉴스에 대해 알려주기도 해요. 하하.

황정택 나이트 갈 때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젠 젊은이들이 가는 나이트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젠 입구에서 막을 테죠?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성인나이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 젊은이들 가는 데 갔다가 음악이 낯설고 안 맞아서 슬그머니 그냥 나오는데 뒤통수가 아주 뜨끈했어요!

박보민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나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웨이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비참하더라고요.(웃음)

이종구 썩스럽지만 아랫배에 봉침을 맞으러 가기도 했어요. 남자들이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체력 저하 아닌가요? 하하.

황정택 50줄에 접어든 남자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 거 같아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쉰 살에 가까우신데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문제나 사회적인 대우 외에 다른 걱정거리들이 있으신지요?

박보민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동년배 자녀들의 결혼식에 초대 받아 가면 마음이 심란할 밖에도, 퇴직에 대비해서 자기개발을 하는 등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마음만 조급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지 하고 마음먹지만 또 공염불이 되고 일상에 매몰되고 말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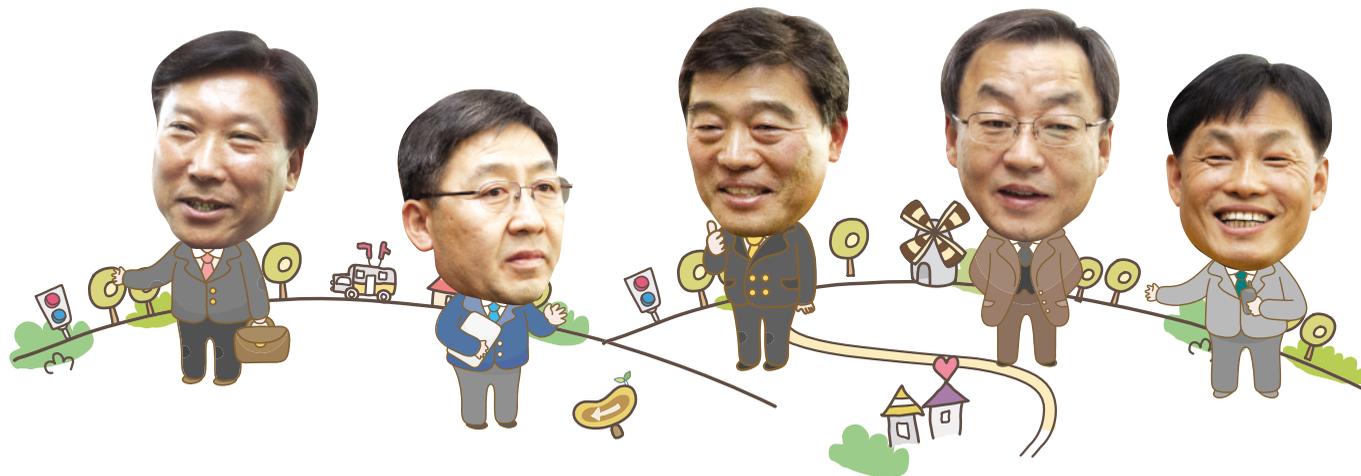
황정택 노후 준비, 자식 걱정, 퇴직 후의 생활 등 제 2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우리는 가장 배고플 때, 정치적으로도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난 세대예요.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50을 넘긴 친구들이 많아요. 그저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푸념하고 넋두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죠.

박재홍 KT의 58세 정년은 요즘의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60까지는 왕성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정년이 60세까지만 된다면 이렇게 고민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은 지출을 할 나이인데 동시에 퇴직을 함께 걱정해야 하니 머리가 아플 수밖에요. 특히 아이들 문제가 가장 어렵고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건강이나 노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나이 들어서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어떤 일에 노련함이 생긴다거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참가자 모두 (이구동성으로)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이 어디 있어요?

황정택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나이 들면서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다소간의 여유로움이 생겼다는 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젊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해보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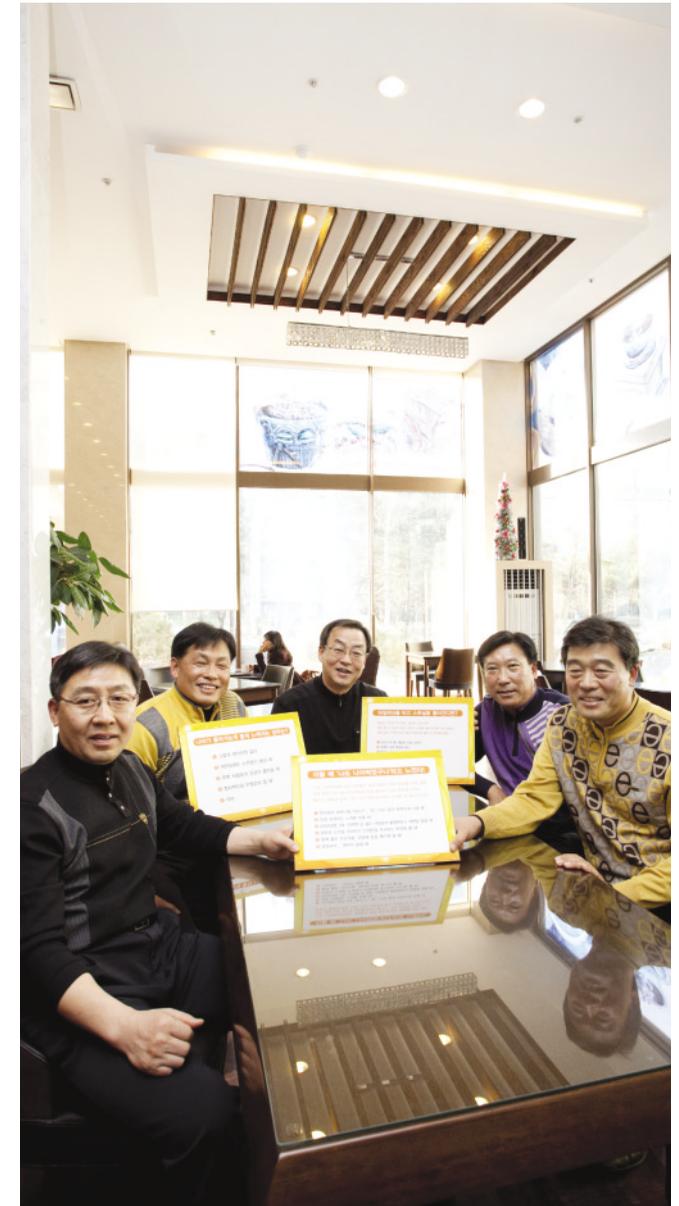
박재홍 제복을 입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KT에 입사하기 전에 경찰공무원을 준비했었어요. 20대로 돌아간다면 다시 공부를 해서 경찰이 되고 싶어요.

고대용 멋진 몸매를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때 다하지 못했던 공부에도 매진해보고 싶네요.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면 또 열심히 놀지 않을까요? 하하.

황정택 세계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한비아처럼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문화체험도 하고 싶고, 국제봉사활동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세계여행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는 빼놓고 않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퇴직하면 꼭 유럽여행에 나설 거예요.

박보민 '서른 즈음에'를 불렀던 가수 김광석이 그랬던가요? 예순이 되면 심장이 번쩍할만한 뜨거운 연애를 하고, 할리 데이비슨을 타며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해야 할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특별하게 어떤 한 가지를 하고 싶다가보다는 더 늦기전에 그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싶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멋진 이성과 로맨스도 다시 해보고, 다양한 취미활동에 빠져도 보고, 여행도 마음껏 즐기고,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이 20대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지금의 젊은이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50대로 한번쯤 와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절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현재 자신이 원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다면 지금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못했다고 또 후회하지 않을까요? 언제나 '미래의 나'에게 '현재의 나'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일 테니까요!



시와 연기에 젖은 자유주의자

배우 오광록

느릿느릿 특유의 운율로 리듬을 타는 말투, 하지만 또렷하게 달팽이관을 흔드는 선명한 목소리. 10년째 밭을 일구며 채소를 키우고, 연기만큼 시를 사랑하는 배우 오광록. 가끔 그림도 그리고 훌쩍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떠나는 자유로운 영혼. 인습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주류보다는 비주류에 더 어울릴 법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존재감 뚜렷한 배우로서 대중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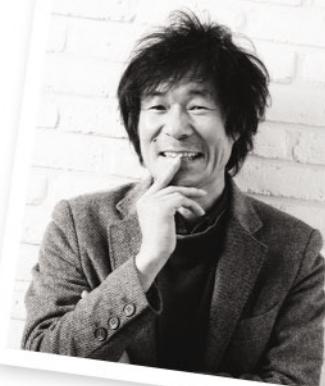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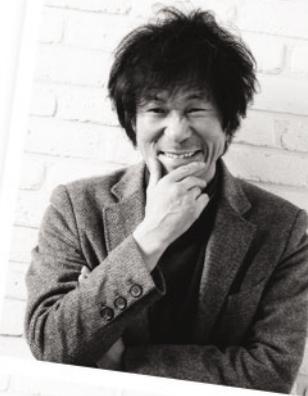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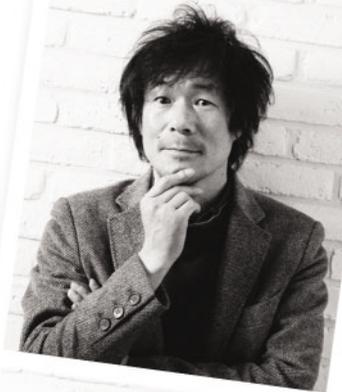
오 광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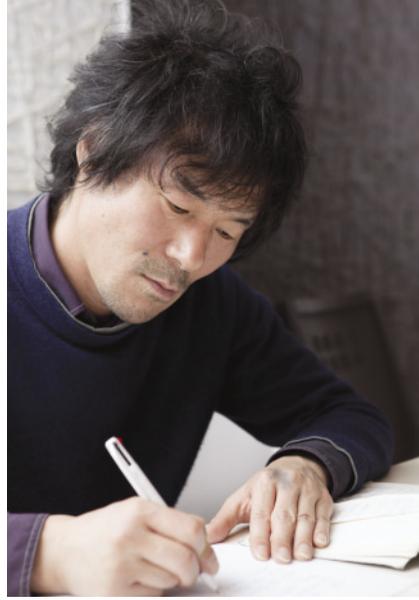
박찬욱 감독과의 네 번째 만남

얼마 전 영화 <파란만장>이 개봉됐다. 박찬욱-박찬경 형제가 공동 감독한 이 영화는 전 장면을 아이폰4로 촬영해 화제가 됐다. 스마트폰 영화 사상 최초로 극장에서 개봉한 <파란만장>은 베를린국제영화제 단편영화 경쟁부문에 초청될 만큼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영상으로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아이폰 영화는 감독은 물론 배우에게도 분명 새롭고 낯선 도전이었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16일에 크랭크인 해 5회 차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47명의 스태프들과 함께 강행군을 했어요. 카메라가 다르다는 것 외에는 일반 촬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 카메라에 비해 이동이 편리하고 움직임이 훨씬 자유롭더군요. 수중촬영도 아주 잘 나왔어요. 거친 화질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낮에 찍은 장면은 화질이 매우 선명해서 일부러 거칠게 만들어야 했지요.”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세 편-복수는 나의 것, 올드 보이, 친절한 금자씨-에 연달아 출연한 그는 5년 만에 다시 만난 박 감독과 함께 그렇게 네 번째 작품을 완성했다.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배우

오광록 씨는 1982년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연극무대에 데뷔한 이후,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 <올드보이> 등 수많은 작품에서 인상 깊은 연기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았다. 열여섯 살 때부터 시문학도를 꿈꿨던 그가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 모른다. 재수 시절, 고등학교 단짝친구와 배우예술원에 발을 디딘 것이 그를 파란만장한 직업배우의 길로 인도했다.

이제껏 30여 편의 연극 무대에 섰고, 또 그만큼의 영화에 출연했다. 연극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배우 송강호는 그를 가리켜 “무대 위에서 옆으로 고개만 돌려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 배우”라고 극찬한 바 있다.

그는 작품 선택에 까다로운 배우로 알려져 있다. 스스로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의 빛깔들이 있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법이 다르기 마련이다. 비단 배우가 아니더라도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어떤 틀 안에서 살다 보면 자신을 평준화시키게 되고, 사회와 시스템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자신을 맞춰가다 보면 자기만의 고유성을 잃기 쉽다. 작품을 보는 그의 간간함은 자신의 색깔을 담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과정에 다르다.

멈추지 않는 시에 대한 열정

시인 김수영의 푸른 저항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청년은 직업배우의 길을 걸었지만, 시에 대한 열정의 끈은 단 한 차례도 놓은 적이 없다.

시는 고단한 삶을 지탱시켜 주는 힘이자 구원이었다. 20대 때는 1년에 한두 편의 연극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을 모두 시에 할애할 정도로 매달렸다. 시는 펜이 없어도 머릿속과 가슴과 영혼에 아로새겨졌다. 시가 없었다면, 그는 어쩌면 연극무대를 버렸을지 모른다. 시가 없었다면, 수많은 시련 또한 극복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난 2009년에 겪은 대마초 사건도 시가 있었기에 비로소 이겨낼 수 있었다. 오광록 씨는 그해 검찰이 조사한 마약 반증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아 법원의 보석 판결로 석방됐다.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45일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풀려난 그는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지리산 벽송사에 들어가 시를 쓰며 마음을 정화했다. 삶과 영혼에 술한 조각 칼을 맞아봐야 시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시인이었다.

순수사회에 대한 따스한 시선 그리워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느냐고 묻자 박찬욱 감독의 영화 <찬드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순수사회에 대한 따스한 시선을 가진 영화”를 말한다.

“열여섯 살 때부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나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같은 맥락에서, 누구 하나 잘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를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쓸쓸하면서도 로망이 느껴지는 유럽영화풍의 멜로영화 주인공이나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바보 역할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단다. 하지만 당장의 목표는 시집 발간이다. 올 상반기에는 꼭 그의 이름을 단 시집을 펴낼 계획이다. 지금껏 써놓은 수많은 시 중에 좋은 시편들을 모아 묶어내는 일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첫 시집을 출간하게 되면 책을 통해서 나눔도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설렐 거예요. 좋은 시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배우 오광록이라는 이름을 매개로 책을 접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정말 시가 좋아서 읽고, 시가 좋아서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진정 시와 자유를 사랑하는 그의 삶은 어느덧 오광록표 연기의 밑거름이 되어 연극 무대와 스크린에서 매번 새롭게 피어난다.



시와 꽃의 이야기

시와 꽃이 와서 이야기 하여 준다
~~아름다움이란~~
 아침이면 날개가 피어난다고
 깃털이 부끄러움이어
 부비다 날개를 뽐내는 새여
 도시의 한 켠에, 새의 보금자리를 파괴한다 것이
 부끄러워져 가는 생활이어
 언제나 아름다움이여
 저녁이 되면, 잠으로 하강하는 도시의 천사들이
 꽃잎은 바람에 다 놓아주고
 꽃대만 마르고 돌아가는 저녁이여
 언제나 아름다움이여
 아침이 되면,
 빈꽃대여 날개가 피어 난다고
 밤은 그러한 일들을 하느라
 아슬아슬했구나!
 아름다움이여 너는 언제나
 여기와 저기 사이를 건너 / 내게 들리어 왔다

오광록
 K T 조립편의 리본
 건강하시니 행복하시길
 2010. 10. 10.

신년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공적인 자기 계발 노하우



치밀한 계획보다 꾸준한 실천과 노력이 왕도

직장인은 바쁘다. 거기다 한 집안의 가장, 주부 역할까지 도맡아야 한다면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하지만 주변에는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자기 계발에 열성적인 동료들이 있다. 그들이 유별난 걸까? 효율적인 시간 관리 능력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현실적인 성과를 이뤄낸 이들을 통해 작심삼일 극복 노하우를 알아봤다.

🕒 24시간을 48시간처럼 활용하라!

의미 없이 소비되는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한정된 시간을 세세하게 나누어 나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주말과 휴일 시간을 세밀하게 나누면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짬이 존재한다. 하루의 1/3 이상을 회사에 매어있는 직장인에게 장시간 투자는 무리, 단시간의 꾸준한 활용이 중요하다. 누구나 흔히 시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몇 가지가 있다. 출근 시간 영어공부, 퇴근 시간 책 읽기, 30분 빨리 출근해 공부하기 등이다. 이러한 방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루 정도 거른다고 해도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다. 새해를 맞아 저마다 한두 가지 자기 계발 계획이 있을 터. 자투리 시간을 모아 보자. 짬짬이 시간을 모으면 의외로 시간이 풍족해질지 모른다.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자기 계발 목표를 뚜렷하게 확립하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현실적인 나만의 목표 세우기

첫째,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꿈이 커야 결실도 크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비현실적이거나 허황된 목표는 좌절감만 안겨준다. 계단을 오르듯 차근차근, 목표에도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름휴가 때의 외국여행을 위해 어학 공부를 시작했다면, 우선 1개월 이내 영단어 300개를 마스터 하겠다는 식으로 단계를 설정한다. 둘째, 반드시 이루고 싶은 자신만의 목표를 세운다. 남들이 하니까, 요즘 유행이라고 해서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금물.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성도 커진다. 마음에 드는 옷을 입기 위해 다이어트를 계획하거나,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거나, 원하는 부서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따는 등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성과를 기록하고 자신에게 확실한 보상을...

자신의 목표를 100%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물론 최대의 성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을 체크하면서 조금씩 드러나는 성과를 통해 자신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토익점수 800점을 목표로 정했다면 해당 점수를 달성했을 때, 갖고 싶던 '아이패드'를 자신에게 선물하는 식이다. 바쁜 와중에 힘들게 고생한 스스로에게 찬사를 보는 것이다. 이외에도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운동을 일주일에 3번 했다면, 스스로에게 멋진 운동화(또는 운동복)를 선물해서 스스로를 격려하라. 동시에 해당 과정들을 수첩에 기록해 나가면 자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혹은 나태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함께 할 동지 만들기

마라톤에 러닝메이트가 있듯, 자기계발에도 파트너가 있으면 쉽고 편하게

시도할 수 있다. 댄스스포츠를 배우고 싶는데 혼자라서 어색하고 쑥스럽다면, 평소 춤을 좋아하는 동료를 섭외하자. 둘이라면 덜 어색하다. 영어회화 수업을 신청했는데 낯선 사람과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기가 난처하다면, 해외 출장을 앞둔 동료와 함께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 부담감도 덜고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다. 특히 자칫 나태하거나 방심할 때, 냉정한 감시자 역할도 된다. 혼자라면 쉽게 포기할 일도 둘이 함께하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직장인이자 누구나 원하고 또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성공적인 자기 계발.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과를 얻는 것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더 나은 한해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대는

글 | 노미경

(부산지방본부 미남지부 CER팀)

그대는
빈 가슴속 그리움
휘감고 불어오는
상큼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그대는
이별의 그늘 속에
나부끼던 절망을
접어 말리던
희망의 빨랫줄이었습니다.

그대는
칼바람 부는 삶 속으로
심없이 흐르던 피눈물 닦아주던
하이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대는
질긴 사랑의 밧줄로
기다림의 노를 저어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너던
외로운 돛단배였습니다.

그대는
잃어버린 아픈 역사(歷史)의
슬픈 추억을 쓸어 담아
생명으로 흘부리던
평화로운 첫눈이었습니다.

그대는
쓰러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들풀로
진한 사랑 노래 부르며
타오르던 햇불이었습니다.



조합원과 함께 하는, 조합원이 참여하는 공간

〈뫼〉의 'Essay' 코너는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삶에 대한 긍정과 통찰, 성찰이 담긴 에세이는 물론 마음에 울림이 남는

책에 대한 '독서 에세이' 등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곳 : mabin@kt.com

※ 원고는 편집회의를 거쳐 수록하고,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북지방본부는 ‘비빔밥’ 이다!



왼쪽부터 임정택 교육홍보국장, 김덕경 쟁의국장, 이광욱 사무국장, 최춘덕 여성국장, 양정우 위원장, 노용환 복지후생국장, 윤기성 조사통계국장, 신환균 조직국장

전주의 명물 비빔밥은 그저 여러 반찬을 넣고 비벼먹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육수로 지은 밥과 고명으로 올라가는 갖가지 나물들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어야만 제 맛을 낸다. 비빔을 때 각기 고유한 맛은 지켜내면서도 기막힌 조화를 이루어야만 진정한 ‘전주비빔밥’ 이랄 수 있다. 전북지방본부도 그렇다. 양정우 위원장을 비롯한 상무집행위원들은 각자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함께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 맛깔스런 전주비빔밥을 꼭 닮았다.



작지만 강한 현장 중심의 지방본부

전북지방본부가 자리한 전주로 들어서면 ‘호남제일문(湖南第一門)’이라 쓰인 거대한 일주문을 지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일주문은 전주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한옥, 한지, 한식 등 우리네 전통문화가 꽃피우고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호남의 자부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방본부 사무실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진다. 전주한옥마을의 고색창연함처럼 빈틈없이 정갈하면서도 사람들의 표정에는 멋과 풍류가 담겨 있다. 후덕한 얼굴의 양정우 위원장과 신환균 조직국장, 이광욱 사무국장, 임정택 교육홍보국장, 김덕경 쟁의국장, 노용환 복지후생국장, 윤기성 조사통계국장, 최춘덕 여성국장까지 8명이 한 자리에 모이니 국사를 논하기 위해 자리한 선비들처럼 진지하다.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자 금세 토론의 열기가 느껴질 정도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양정우 위원장의 지방본부 운영 철학과도 관련이 깊다.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당면한 과제들이 쉽게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어져 해결책까지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무집행위원들과의 자리에서뿐 아니라 축구대회 등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8개 지부에 85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북지방본부의 특징에 대해 묻자 이구동성으로 “작지만 강하다.”고 말한다. 이광욱 사무국장은 “상집들이 현재 지부장이거나 지부장 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어서 조합과 회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고, 조합원과 현장 중심적인 사업들을 펼쳐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춘덕 여성국장은 “축구대회를 비롯해 전북지방본부만의 행사가 많다.”면서 “조합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남다른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만들면, 그 안에서 서로 간의 동질감을 느끼고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다.”

조합원들의 필요를 먼저 캐치하라!

지난해 가을 ‘제12회 전북위원장기 축구대회’가 열렸다. 12개 팀의 선수단과 응원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축구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물론 축구를 즐기는 자리였지만, 전북지방본부의 축구대회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임정택 교육홍보국장은 “축구는 지부와 지부의 만남, 조합원들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매개체”라면서 “단순히 축구를 즐기는 것 외에 지방본부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양정우 위원장도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을 만들면, 그 안에서 서로 간의 동질감을 느끼고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다.”면서 “축구대회가 끝나고 나면 두세 달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거리가 생기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이 마련하는 다양한 형태의 ‘마당’은 결국 원활한 소통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나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필요를 먼저 캐치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북지방본부의 마음가짐은 조합원들의 어려운 곳을 찾아내 굽어주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게 했다.

조직개편 이후 마케팅단, 법인단, 네트워크단 등 단 간에 비상 연락망이 끊겨 주말이나 휴일에 애경사가 발생하면 알릴 방법이 없었다. 이에 전북지방본부는 2009년 4월 전용 크로샷을 구축해 조합원 간의 소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문서 양식과 표준화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예스폼(www.yesform.com)에 가입해 조합원들이 일상과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 사수가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협약을 체결해 조합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게 하기도 했다. 조합원, 상무집행위원, 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전북지방본부의 원활한 소통 구조의 중심은 조합원이다. 어쩌면 전주비빔밥을 담은 것은 상무집행위원들뿐만이 아닐 것이다. 조합원 전부가 하나하나의 재료가 되고, 그들이 한데 뭉쳐 전북지방본부라는 기막힌 맛의 비빔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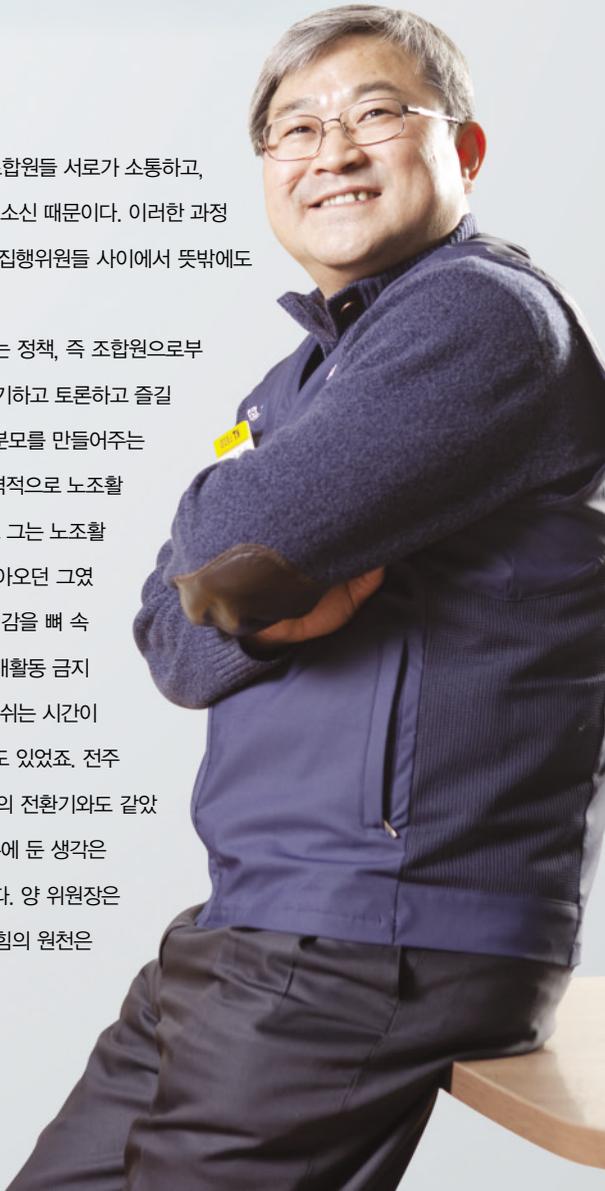


Interview_전북지방본부 양정우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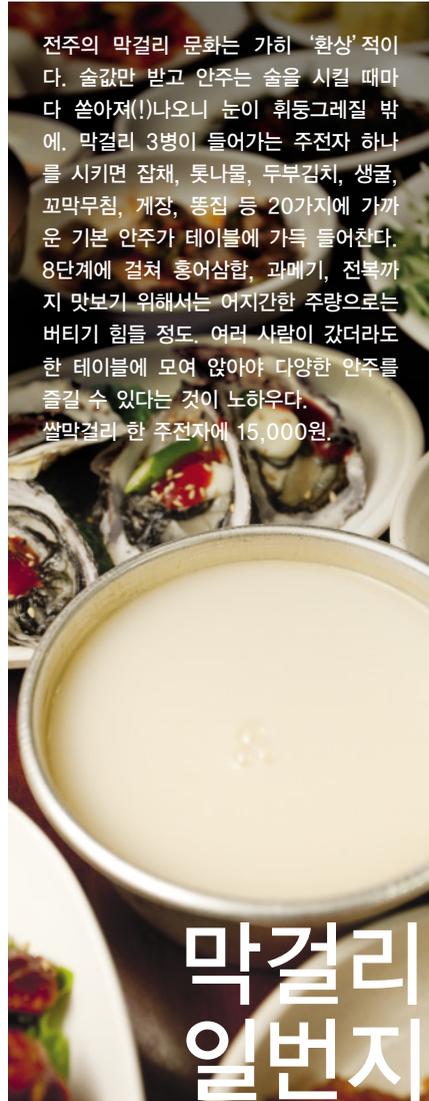
‘열린 마당’의 정치학으로 강인한 조직 만들 것



상무집행위원들과의 자리에서 양정우 위원장은 말을 아낀다. 오고가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가끔씩 거들뿐 말을 가로막거나 먼저 나서는 법이 없다. 조합원들 서로가 소통하고,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마당’을 열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양 위원장의 소신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원장의 몫이다. 그래서 그는 상무집행위원들 사이에서 뜻밖에도 ‘고집쟁이’로 불린다. 행동함에 있어서는 물러섬이 없기 때문이다. “위원장이란 자리는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방패막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이 우선되는 정책, 즉 조합원으로부터 시작된 움직임이 다시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즐길 수 있는 마당을 만들고, 축구대회처럼 조합원들이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공통분모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물론 한번 의견이 모아지면 양보란 있을 수 없죠.” 양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노조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0년 7대 전북지방본부의 사무국장을 맡았을 때였다. 당시만 해도 그는 노조활동이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고 여겼다고 한다. 회사의 이런저런 모임에서도 총무만 맡아오던 그였지만 부서장과 대의원을 거쳐 2002년 8대 중앙본부 사무처장을 맡으면서 남다른 사명감을 뼈 속 깊이 심게 되었다. “중앙 사무처장 직을 수행하면서 주5일 근무제, 비영업부서 상품 판매활동 금지 등을 쟁취해낸 것이 10여 년 간의 노조활동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아요. 3년 동안 정말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얼마나 무거운 중압감을 가지고 일을 했었던지 하루에 담배 10갑을 피울 때도 있었죠. 전주로 다시 내려왔을 때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3년이 저에게 인생의 전환기와도 같았어요.” 이후 2006년부터 전북지방본부 9, 10대 위원장 직을 맡아오면서 그가 항상 염두에 둔 생각은 ‘함께하는 것’이다. 몇몇 사람이 아닌 조합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동조합을 꿈꾸었다. 양 위원장은 조합원 모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즐기는 마당을 만드는 사람이다. 전북지방본부의 힘의 원천은 조합원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써 전북지방본부는 뿌리로부터 강인한 조직으로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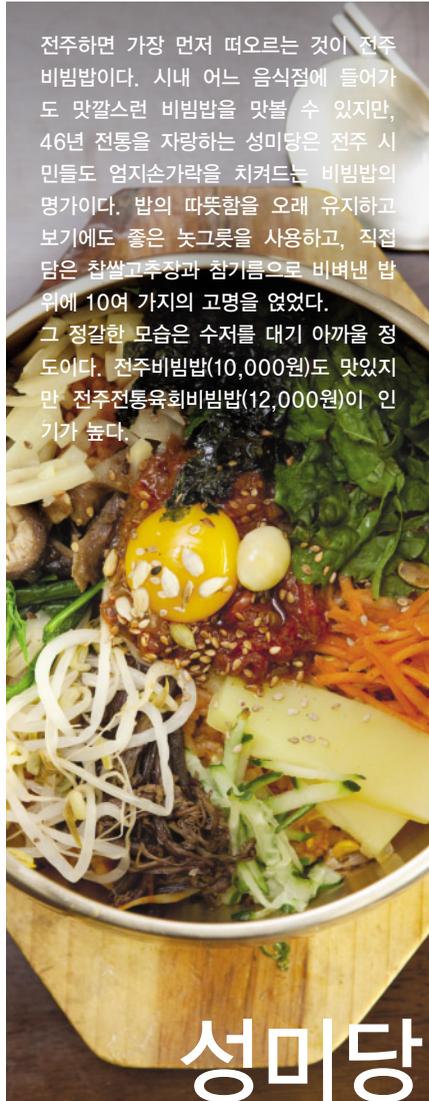
식도락의 천국, 전주 그 중에서도 3곳을 꼽는다면?



전주의 막걸리 문화는 가히 '환상'적이다. 술값만 받고 안주는 술을 시킬 때마다 쏟아져(!)나오니 눈이 휘둥그레질 밖에. 막걸리 3병이 들어가는 주전자 하나를 시키면 잡채, 툇나물, 두부김치, 생굴, 꼬막무침, 계장, 풍집 등 20가지에 가까운 기본 안주가 테이블에 가득 들어찬다. 8단계에 걸쳐 흥어삼합, 과메기, 전복까지 맛보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주량으로는 버티기 힘들 정도. 여러 사람이 갔더라도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야 다양한 안주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노하우다. 쌀막걸리 한 주전자에 15,000원.

**막걸리
일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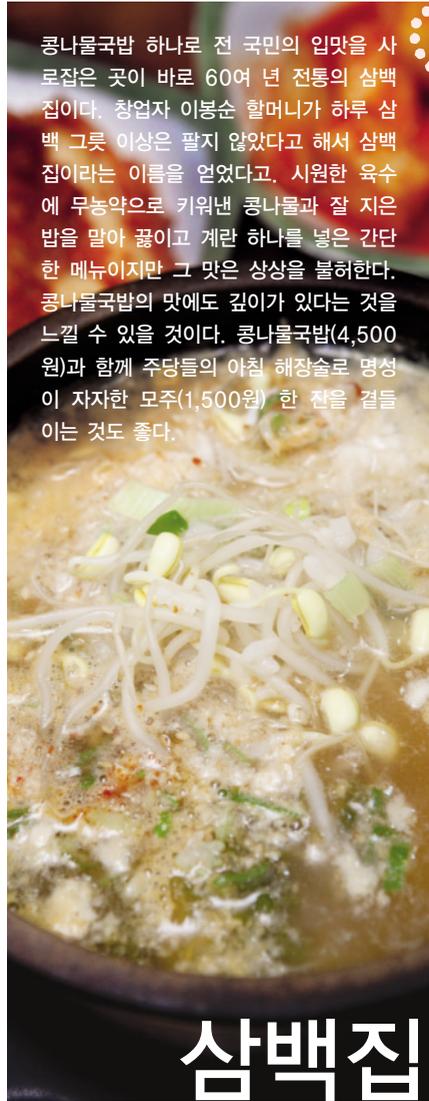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5-13
문의 | 063-254-7800



전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주 비빔밥이다. 시내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도 맛갈스런 비빔밥을 맛볼 수 있지만, 46년 전통을 자랑하는 성미당은 전주 시민들도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비빔밥의 명가이다. 밥의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고 보기에도 좋은 낫그릇을 사용하고, 직접 담은 참싹고추장과 참기름으로 비벼낸 밥 위에 10여 가지의 고품을 얹었다. 그 정갈한 모습은 수저를 대기 아까울 정도이다. 전주비빔밥(10,000원)도 맛있지만 전주전통육회비빔밥(12,000원)이 인기가 높다.

성미당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61
문의 | 063-273-0029



콩나물국밥 하나로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은 곳이 바로 60여 년 전통의 삼백집이다. 창업자 이봉순 할머니가 하루 삼백 그릇 이상은 팔지 않았다고 해서 삼백집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시원한 육수에 무농약으로 키워낸 콩나물과 잘 지은 밥을 말아 끓이고 계란 하나를 넣은 간단한 메뉴이지만 그 맛은 상상을 불허한다. 콩나물국밥의 맛에도 깊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콩나물국밥(4,500원)과 함께 주당들의 아침 해장술로 명성이 자자한 모주(1,500원) 한 잔을 곁들이는 것도 좋다.

삼백집

주소 |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454-1
문의 | 063-284-2227



오목대에서 바라본 '한옥마을'



전주교 신자의 순교지 '전동성당'



전주 한옥마을 생활체험관



전주 한옥마을 골목

전통문화의 숨결로 그득 골목을 걷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 일컬어지는 전주, 그 안에서도 전주한옥마을은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한 곳이다. 먼저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오목대에 올랐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연회를 열었다는

오목대에서 바라본 전주한옥마을은 따뜻했다. 진회색 날개를 펼친 새들이 모여 있는 듯한 700여 채의 기와집들은 차가운 도시 속에서 전통의 온기를 뽐내고 있었다. 이처럼 도시 한 가운데 한옥마을이 형성된 것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 많은 일본인들이 전주로 들어왔다. 성 밖에 머무르던 일본인들은 결국 성곽을 허물고 도로를 내며 성 안으로 진출했다. 왜색 짙은 건물들이 곳곳에 지어지니 전주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풍남동과 교동 일대 약 75,000평에 달하는 지역에 하나 둘 고풍스런 한옥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을은 현재까지 이어져오며 우리 것에 대한 전주 사람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오목대에서 내려와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100년 전으로의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그 끝을 하늘로 살짝 치켜 올린 처마지붕들이 단아한 곡선을 그려내고, 돌담길을 따라 걷다보면 굽이굽이 귀한 문화재와 아트갤러리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자그마한 구멍가게조차도 쉽사리 지나칠 수 없을 만큼 골목마다 전통문화의 숨결로 가득하다. 이러하니 자연스레 발걸음은 늦춰지고, 마음은 여유로워진다.

<훈불>의 최명희 작가를 기념하는 최명희문학관을 비롯해서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공예명인관, 소리문화관, 전주전통한지원 등 전주한옥마을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넘쳐난다. 이 가운데서 경기전은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 즉 어진을 모시기 위해 태종 10년(1410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어진과 함께 조선왕조의 역사를 보존하는 전주사가가 있어 조선왕조 발상지인 전주의 위세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이외에도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촬영지로 최근 주목을 받은 전주향교, 우리나라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자리에 세워진 전동성당, 전통 공예 장인들의 멋들어진 솜씨를 볼 수 있는 전주공예품전시관 등이 전주한옥마을의 필수코스이다.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승광재, 설예원, 동락원 등의 전통한옥 체험시설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즐기는 것도 좋다.

문의 | 063-282-1330, www.jeonju.go.kr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주인의식!

본사지방본부 국제전화국지부

‘전화국’이란 예스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지부는 전국에서 국제전화국지부가 유일하다. 그러나 국제전화국지부가 고루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지부 사무실, 아니 정문에 들어서서 순간부터 산산이 부서져버렸다. 반갑게 서로를 환대하고, 헌신적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주인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고 스마트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표 국제전화
001

olleh kt **국제전화국**



왼쪽부터 임미순 교육홍보부장, 조혜성 사무부장, 봉미애 지부장, 장옥화 여성부장, 김선춘 조직부장

KT임직원 동참 캠페인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KT임직원 모두 지금 투표에 참여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귀중한 한통화가 KT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참여방법 | 001-1588-7715 ▶ ARS ("삐" 소리 후 제주코드 7715 입력)

참여기간 | 1차 ▶ 2011. 2. 28(월) / 2차 ▶ 2011. 3. 1(화) ~ 4. 30(토)

적용요금 | 모바일파워요금 / 10초당 18원(1분 108원)

※ KT / 그룹 조합원 및 가족 1인 4통화 이상 전화 투표에 동참해 주세요.



◎ 따스한 사랑방 같은 지부

영하 17°C의 추위가 맹렬한 기세로 옷깃을 여미게 하던 어느 겨울날, 용산구에 위치한 국제전화국지부를 찾았다. 종종 걸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문을 지나는데 건물 입구 쪽에서 “굿모닝! 국제, 올레! 001 두두두!”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귀와 볼이 벌개지도록 추운 날씨였지만 출근하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환영하는 노사 간부들의 힘찬 목소리였다. 1월 중순부터 시작된 ‘굿모닝 001 Monday’ 이벤트였다. 주말을 보내고 한 주가 시작되는 매주 월요일, 봉미애 지부장을 비롯한 10여 명이 아침 일찍부터 동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자 기획한 행사다. 조합원을 섬기는 지부, 국제전화국지부의 따뜻함이 담백 묻어나는 모습에 한겨울의 추위도 잠시 주춤하는 것만 같다. 이러한 훈훈함은 지부 사무실에서도 전해져온다. 언니, 누나처럼 살가운 얼굴의 봉미애 지부장, 김선춘 조직부

장, 조혜성 사무부장, 장옥화 여성부장, 임미순 교육홍보부장 등이 한 자리에 모이니 지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아랫목 뜨끈한 사랑방처럼 느껴진다. 국제전화국은 말 그대로 국제전화를 담당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의 음성서비스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후불카드 영업,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국제전화 컨설팅, 해외와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케이블이나 위성의 트래픽에 대한 정산 등이 주요 업무이다. 이 때문에 국제전화국 조합원 대부분이 외국어를 구사하는 글로벌한 인재들이다.

김 조직부장은 “이러한 업무적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조합원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로 서로의 집에 손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 정도로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지요.”라고 말했다. 유난히 가족적이고 푸근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묻어난다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다.



◎ **확고한 주인의식으로 무장**

이처럼 화기애애하고 다정한 지부이지만 어려움도 많았다. 한 때 450명에 달하던 직원들은 2003년 즈음 약 200명으로 줄어들었고, 현재 73명의 직원에 62명의 조합원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특히 광화문에서 효창지사로 이전한 지난해는 조합원 모두가 위기감을 느껴야했다. 국제전화국이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봉 지부장은 “88올림픽 때부터 국제전화가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개방되면서 해마다 매출이 떨어지니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었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해 20% 이상씩 감소하던 매출이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노사가 함께 주인의식으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였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 ‘컬러풀 데이’를 실시해 9개 팀별로 색깔과 그에 해당하는 국가를 정해 집중 마케팅을 펼쳤고, 12월에는 ‘청바지 입는 날’을 정해 침체된 분위기를 자유롭게 활기차게 끌어올렸다. 특히 외국인 영업팀의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밀착 마케팅’의 효과는 놀라웠다.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찾아가 무료 통화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KT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다. 봉 지부장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KT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매출이 2009년 대비 3배 이상 뛰었어요. 선불카드 시장에서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1위를 차지했으니 기적에 가까운 일이지요.”라고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성공에는 봉 지부장을 비롯한 국제전화국지부의 주인의식과 섬김의 정신이 밑바탕이 되었다. 장 여성부장은 “조합원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지부장이 먼저 나서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어요. 조합원들의 애경사를 챙기는 것은 물론 퇴직 사우와 다른 지사로 떠난 분들에게까지 일일이 신경을 쓰고 있죠.”라면서 “노사를 불문한 투철한 주인의식과 조합원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어려움을 극복해낸 원동력!”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제전화국의 ‘우렁각시’

부드러운 미소에 또박또박한 발음의 말투, 국제전화국 봉미애 지부장은 여성스러우면서도 든든한 버팀목과도 같은 자세로 말문을 열었다. 봉 지부장은 1979년에 입사해 30여 년을 국제전화국에서 보냈다. 평범한 조합원으로 지내던 2005년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조합원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지부장 후보로 출마해 많은 사람들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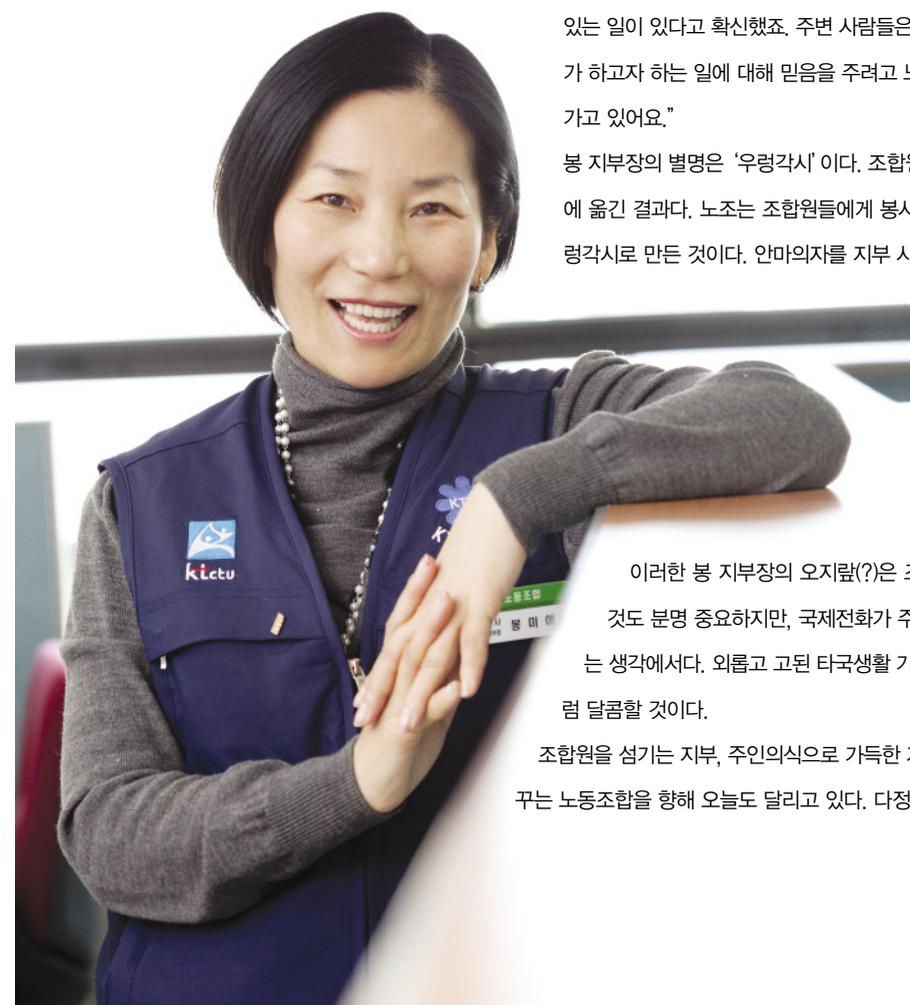
“국제전화국지부는 강성노조라는 시선이 많았어요. 하지만 노동조합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확신했죠. 주변 사람들은 회사 일을 잘하다가 왜 지부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믿음을 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9, 10대 지부를 제 나름의 소신과 부서장들의 도움으로 이끌어 가고 있어요.”

봉 지부장의 별명은 ‘우렁각시’이다.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발견하고 행동에 옮긴 결과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봉사하는 조직이라는 신념과 만나니, 누나와도 같은 따뜻한 시선이 봉 지부장을 우렁각시로 만든 것이다. 안마의자를 지부 사무실에 비치하고, 온돌방 휴게실을 마련한 것도 모두 우렁각시의 ‘작품’이다.

“국제전화국 조직이 축소되면서 부득불 다른 조직으로 전출 가는 동료 조합원들을 위해서 PC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어요. OP 업무를 보던 사원들은 PC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해 걱정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거든요. 회사에 요청해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2주 동안 교육을 진행했어요. 전출 간 이후에도 직접 찾아가 조합원들이 잘 적응하는지 살피고, 그쪽 지부장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봉 지부장의 오지랖(?)은 조합원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으로까지 확장된다. 매출이 오르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국제전화가 주요 사업인 만큼 전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외롭고 고된 타국생활 가운데 고국의 가족들에게 ki가 제공하는 전화 한통은 그들에게 가뭄 끝의 단비처럼 달콤할 것이다.

조합원을 섬기는 지부, 주인의식으로 가득한 지부, 정이 넘치는 지부 등 국제전화국지부는 봉 지부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이 꿈꾸는 노동조합을 향해 오늘도 달리고 있다. 다정하면서도 굳센 그녀들의 기운에 한겨울의 추위마저 푸근하게 느껴진다.



“이주노동자들은 고객을 넘어 저희들의 친구죠!”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도, 살을 에는 듯한 추위도, 짐동 같은 폭염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외국인 고객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국제전화국 외국고객팀의 이야기이다. 물론 이들의 목표는 매출 신장이다. 허나 그러한 노력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살갑고 다정한 마음이 담겨 있다. 그 따사로운 마음이 다시금 매출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 외국인 노동자들의 메카, 안산

허연 입김이 뿜어져 나오던 어느 겨울날, 안산에 위치한 다문화 마을 특구를 찾았다. 거리 안쪽으로 들어서니 세계 각국의 언어로 쓰인 간판들이 즐비하고, 마주치는 이들은 대부분 외국인이다. 여기저기에서 외국어가 들려오고, 해외여행을 나서지 않으면 좀처럼 맛보지 못할 음식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중국 연변에 여행을 온 것도 같고, 동남아시아의 야시장으로 순간이동을 한 것만 같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외국인 거리는 반월과 시화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메카로 꼽힌다. 중국, 베트남, 네팔,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하나 둘씩 모여든 이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 국제전화국 카드영업팀 현병완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는 공식적인 통계로만 약 87만 명이며, 비공식적으로는 1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특히 이곳 원곡동은 국제전화카드 시장의 메카로 지방의 외국인들이 올라와 도매가로 카드를 다량 구입해 되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고객팀에서 ‘카드 유통의 대모’로 불리는 김선춘 조직부장도 “외국인들이 주말이면 이곳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등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명절을 전후해 수도권 및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다.”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 순수한 그들과 정이 쌓여 ‘누나~’라고 부르며 따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 매출 3배 신장의 비결은 ‘발품’

외국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국제전화국의 외국고객팀도 이날 원곡동에 모였다. 주말마다 펼쳐지는 외국인 시장에서 프로모션을 펼치기 위해서이다. 붐비에 지부장을 비롯해 김선춘 조직부장, 현병완 팀장, 임은미 과장 등이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흥겨운 음악에 푸근한 얼굴로 손을 잡아끄니 멧쩍은 표정이던 외국인들이 너도나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전화카드 수십 장이 돌아가는 것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국제전화국이 외국인 선불카드 시장에 진입한 것은 2007년 4월의 일이다. 타사의 선불카드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외국고객팀은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밀착 마케팅’으로 고객을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매출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난해의 성장세는 외국고객팀 안에서도 깜짝 놀랄만한 것이었다. 김선춘 조직부장은 “선후불 시장을 합쳐 2009년 57억에 머물렀던 매출이 작년에는 191억을 달성해 3배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다.”면서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는 1위를 점유했다.”고 뿌듯해했다.

붐비에 지부장은 “지난해 후발주자로서 이뤄낸 성과는 기적이 가까운 것이다. 특히 김선춘 조직부장은 국제전화카드가 가득한 전대를 차고 판매에 나서 ‘카드계의 마녀’, ‘남대문 아줌마’로 불린다.”라며 “소외계층이랄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그들 스스로 KT 카드를 다른 이들

에게 판매하게 할 정도로 국제전화카드 사업의 터닝 포인트를 일군 주역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주말을 반납하며 1년 52주 가운데 45번이나 외국인 고객들을 찾아 나섰으니 고철 법도 하건만 그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하다.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임은미 조함원은 “행사를 한 번 진행하고 나면 실적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업무에 속도감이 있어 재미있다.”면서 “집에 어린 아이를 두고 나올 때는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요즘엔 종종 아이들과 함께 나오기도 한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외국인들과 만날 수도 있어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프로모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온기가 묻어나고 있었다. 국제전화국 외국고객팀이 겨울을 나는 방법은 따로 있나 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인종을 가리지 않은 사람에 대한 따스한 온정 말이다.



고난은 있으나 좌절은 없다 “나는 언제나 KT인!”

릴렉스 피트니스센터 대표 국가공인안마사 이종두(퇴직사우)



1977년 입사. 22년간 몸담았던 직장과의 이별을 고한 이유가 이종두 대표에게는 조금 특별하다. 1979년 군 입대 후 야맹증으로 발병했던 질환은 이후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당시 전송기술직에 근무하던 그는 남다른 호기심으로 특화사업과 기술혁신에 관심을 쏟아 업무개선에 많은 향상을 가져온 실력파였다. 다행히 밝은 불빛 아래서는 업무적응에 문제가 없었지만 질환이 점차 진행되면서 심리적인 부담은 커져만 갔다.

“1994년부터 조금씩 진행이 빨라졌다는 것을 인식했죠. ‘타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1999년 6월에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다. 41살. 생각지도 못한 이른 나이의 퇴직에 생계는 아내 몫이 되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로 심리적인 방향도 깊어갔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조심스레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지팡이사용법과 점자 해독법, 일상 생활법 등을 비롯한 시각장애인 재활교육을 통해 안마, 마사지, 침술, 지압 등 대체의학의 세계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 관심은 기존 2년이면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생활전선에 뛰어 들 수 있는 단순한 생계형 관심에서 한 발 나아가 깊이 있는 인체의 신비로 그를 이끌었다.

“‘기계’를 다루는 일만 하다가 ‘몸’의 신비를 접하는 것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2년이면 국가에서 기본적인 자격증을 받을 수 있지만, 전문교육을 3년 더 받았죠. 거기에서도 만족할 수 없어서 이 분야에 유명한 분을 찾아가 개인적으로 5년을 더 사사받았습니다. 시력은 잃었지만 인체를 보는 눈을 새롭게 갖게 된 거죠.”

‘퇴직’이라는 단어는 이종두 릴렉스피트니스센터 대표에게 마침표가 아닌 쉼표다. KT를 향한 그의 열정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힘찬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10년 동안의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도제(徒弟)식 교육을 통한 풍부한 오랜 경험들은 그를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새로운 기술과 직원복지후생시스템에 대한 평소의 관심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KT인재경영실의 커리어디자인센터를 찾아 진중한 상담을 시작했다. 2010년 7월에 문을 연 분당 KT본사 내 피트니스 센터는 그 결실이다. 센터가 문을 연 후,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적용시키는 단계로 이어갔다. 글로벌시대에 긴장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으로 고생하는 컴퓨터직종사자들을 위한 특화된 통증 완화 전문 요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종두 대표는 센터가 문을 열기 전부터 컴퓨터를 마주하는 습관으로 인한 목과 주변근육의 스트레스를 빠르게 회복하는 법을 연구해 오고 있었다. 목을 지지하는 어깨 근육들이 개선되면 뇌로 통하는 혈액이 활성화되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유연한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먼저 KT조합원들을 위한 별도의 지압법을 만들어 재생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시도했다. 시간이 없는 조합원들을 위해 10분 동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먼저 손의 반사점을 이용해 조합원 개개인의 신체 상태를 체크한 후 몸 상태에 따라 몸에 맞는 자극을 준다. 센터를 4번째 방문한다는 인재경영실 HR기획담당 손무관 조합원은 척추관리기자에서 10분 동안 머리와 목, 어깨 부위를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마사지와 지압을 받고 나면 몸이 확실히 개운하다고 말한다. “저와 같은 사무직은 컴퓨터로 인한 어깨 통증이 많기 때문에 쿠폰을

이용해서 가끔 옵니다. 점심 식사 후 피곤함이 몰려오는 시간에 10분 정도 할애해서 서비스를 받는데, 지쳤던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제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다고들 말하죠.”

이종두 대표는 현재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있다. 실력을 갖춘 다른 시각장애인들과 뜻을 합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설립이 그것이다. KT는 물론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는 많은 컴퓨터직종사자들을 위한 센터를 곳곳에 확대해 전문성을 넓히는 것이 목표다.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나 퇴직한 지금이나 이종두 대표에게는 자신의 기술이 작은 KT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한결같은 바람이다. 업무로 인해 몸이 결릴 때면 신속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또한 건강한 직장가 가정생활을 위한 일이라며 조합원들을 향한 애정 어린 충고도 잊지 않는다.

절망의 시기마저 승화시킨 그의 끈기와 자부심은 이제 KT조합원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나는 58년 개띠’라고 환하게 웃으며 답하는 이종두 대표. KT를 향한 그의 무한애정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문의 | (031)727-4645

‘땅’ 호쾌한 장타로 스트레스를 날려라

KT야구연합회

흔히 야구를 인생에 빗대 설명한다.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살려서 차곡차곡 스코어를 쌓아간다는 점에서 그렇고, 때로는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도 역전 홈런을 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야구공의 실밥이 108땀인 것을 빗대 백팔번뇌를 떠올리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KT야구연합회 야구동호회 회원들은 야구만한 운동이 없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홈플레이트를 향해 질주하는 그들의 삶은 항상 치열하고 열정적이다.



야구는 신사적인 팀워크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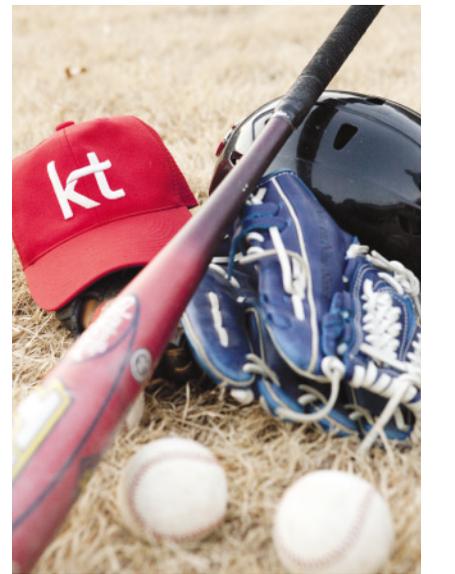
지난 1월 22일 대전마케팅단 둔산지부의 한 회의실에서 KT야구연합회 총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각 팀의 감독과 선수들은 올해의 목표와 다짐을 발표하고, 4월 말 개최 예정인 연합회장기 쟁탈 KT그룹 전국야구대회(이하 '전국야구대회') 대진표를 짜며 오랜만에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KT야구연합회는 임흥순 고문을 주축으로 지난 2000년에 정식 발족했다. 그 전까지 각 지역별로 5~6개 팀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KT야구연합회가 만들어진 후 매년 전국야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초창기 8개 팀은 현재 18개 팀으로 늘었고,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열린 전국야구대회는 올해 제 12회를 앞두고 있다. 어느덧 전국야구대회는 동호인들만의 대회가 아닌,

선수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뜻 깊은 문화로 발전했다. KT야구동호인들의 가장 큰 목표는 전국야구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아울러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각 지역 리그대회에 참가해 생활체육동호인들과 매달 2~3경기를 뛰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KT야구연합회의 허은 총무는 "각 지역에서 사회인 야구를 할 때 KT의 일원이라는 것에 새삼 자긍심을 갖는다"며 "특히 지역리그에서 경쟁회사와 시합을 펼칠 때는 가족들까지 응원에 합세하여 승부욕을 불태운다"고 설명한다. 네트워크부문의 구광민 감독(경기북부 NSC) 역시 "야구는 무척 신사적이고 열정적인 운동으로, 팀워크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스포츠"라며 "KT 로고를 달고 경쟁 팀들과의 경기에 임할 때 특히 자랑스럽다"고 공감했다.



◀ 좌측 사진 왼쪽 위부터 홍성NSC 김종규, KTIS 백홍길, 대구마단 수성지부 최은식, 경기북부NSC 구광민, 충북법인단지부 허은, 유무선네트워크전략본부 김종태, 왼쪽 아래부터 대구마단 경산지부 박옥정, KTIS 진용길, 대전마단 용전지부 김유식, 경기남부마단 여주지부 김형권, 네트워크부문 김도형





동호회 활성화시켜 제 2의 도약 꿈꾼다

경남 남해에서 치러진 제 2회 전국야구대회 4강전은 잊지 못할 경기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야구는 비가 오면 경기를 중단시키기 마련인데, 이날은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수중경기를 치른 것. 진흙탕 속에서 충북팀과 경기남부팀이 수중경기를 벌인 끝에 결국 경기남부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치른 제 11회 대회에서도 명승부가 나왔다. 허 총무는 “개인 고객부문과 대구 양 팀의 실력이 팽팽했다”며 “아마추어경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점수가 나와 모두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며 당시를 떠올린다.

“아마추어 경기는 7회까지 진행되는데, 7회까지 1:0으로 개인고객부문이 이기며 팽팽한 경기를 이어가다가 7회 말 대구가 2점을 뽑아서 2:1로 역전 우승을 거뒀습니다. 정말 모두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몇 년 전 KT야구연합회 야구동호회는 KT 직원 뿐만 아니라 자회사 직원들도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이후 자회사 4개 팀이 창단됐고, 창단이 여의치 않은 자회사 직원들의 경우, 기존 팀에 입단하여 함께 야구를 즐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KT야구연합회 야구동호회에는 젊은 선수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젊은 피의 수혈이 시급한 상황. 이



에 허 총무는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건전모임만큼 좋은 것은 없다”며 임직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건전 모임 동호회에 대한 회사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동호인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건전모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7년에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원정응원을 갔는데 그때 KT로고가 박힌 플래카드가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왔어요. 가능하다면 야구를 통해 그런 마케팅 전도사로서의 역할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허 총무는 현재의 야구대회를 'KT위원장기' 또는 'KT회장기' 야구

대회로 발전시킨다면 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KT야구연합회, 보다 높은 곳으로의 비상을 꿈꾸는 그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KT야구연합회 가입방법〉 야구를 못하더라도 운동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활동할 수 있다. www.ktbf.net을 통해 허은 총무에게 연락하여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KT야구연합회 허은 조합원 인터뷰

야구는 내 인생의 비타민



KT야구연합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충북법인사업단지부 소속의 허은 조합원. 그가 가지고 있는 야구 관련 타이틀은 한 두 개가 아니다. 충북지역야구단동호회 감독 겸 투수, 충북직장인야구연합회 회장, 한국실업야구연맹 이사, 청주시민야구단 회장, 청원군 리틀야구연맹 단장... 그가 야구에 얼마나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야구선수가 꿈이었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야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고, 언젠가 다시 야구를 하겠다는 열망이 늘 꿈틀거렸다. 1988년 KT에 입사한 그는 1997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야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야구장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생활체육 야구대회 선수모집 플래카드를 본 것이 계기가 됐다. “그때 팀을 창단해서 2003년까지 생활체육 야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KT야구연합회가 출범하면서 제가 충북사이버팀을 창단했지요.” 그는 지금 투수로 활약 중이다.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힘을 빼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15년 정도 야구를 해 보니 이제야 힘 빼는 법을 좀 알 것 같다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주말마다 야구를 하러 나가는 그를 끈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다. 다름 아닌 가족들이다. 아이들이 아빠의 꿈을 그리워할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한 것이 늘 아쉽다는 허 총무. 다행히 요즘은 가족이 함께 즐기는 수준이 됐다고. “앞으로 KT 자회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를 치러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며, “KT에서 프로야구단을 인수해 야구에 대한 불이 다시 일어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말하는 허은 총무. 그에게 야구란 삶의 활력소이자 인생의 비타민이다.



잠자리가 편해야 여행이 즐겁다

즐거운 여행을 위한 펜션 선택 노하우!

여행 계획에 있어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기간, 그리고 여행지 선택이다. 목적지를 정했다면 다음은 머무를 곳을 고를 차례. 여행에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묵을 것인지도 중요하다. 여행지에서 편히 먹고 쉬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해당하기 때문. 호텔, 콘도, 모텔, 민박도 좋지만 가족단위의 여행이라면 펜션이 제격이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떠난 여행을 망치지 않으려면 좋은 펜션을 고르기 위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매년 휴가철이면 인터넷을 통한 펜션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만 봐도 펜션 선택은 중요하다. 좋은 펜션을 고르기 위한 체크 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자.

겨울철은 여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수기에 해당되지만, 겨울 스키장이나 눈꽃여행 등 겨울철 낭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펜션은 여전히 인기. 특히 가족단위 여행객이 머물기 좋은 펜션은 사시사철 인기다.

+ 잘되는 펜션은 예약사이트에 없다?

전국에 4천 개가 넘는 펜션 가운데 예약사이트에 중개대행을 의뢰한 펜션은 300여 개 내외. 예약사이트는 이들 펜션을 홍보하거나 예약을 대행해줌으로써 숙박비의 10~20%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받는다. 대부분 예약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펜션의 경우, 문을 연지 얼마 안 돼 아직 알려지지 않은 펜션이거나 예약률이 낮은 펜션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서비스가 좋고 쾌적한 펜션으로 소문이 난 곳이라면 10~20%의 수수료를 부담하며 예약사이트를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흰색 이불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청결은 보장?

숙박업소 입장에서도 많은 방에서 나오는 이불을 매번 빨고 말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터. 그래서 모텔의 침구는 질은 색상인 경우가 많다. 흰색 침구를 갖춘 곳이라면 청결에 신경 쓰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

+ 대단지 펜션은 서비스가 떨어진다?

보통 10~20동 이상의 펜션이 있는 단지형 펜션은 주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관리인이 고용된 경우가 많다. 내 집에 온 손님을 모신다는 주인 의식이 없으므로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펜션에 비해 사무적이기 마련이다. 사소한 양념류를 빌린다거나 텃밭의 채소를 얻을 수 있는 시골 인심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 성수기 직전과 직후 1주일을 노려라?

일반적으로 휴가철은 주말 주중 관계없이 성수기 비용을 적용한다. 비수기 주말 비용보다 50~100% 더 비싸다. 성수기 직전이나 직후 1주일을 노려 펜션을 예약한다면 휴가 분위기는 남아있지만 비용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 10인 이상 단체룸이 많다면 시끄러울 각오를 하자?

단체룸이 2개 이상 있는 펜션이라면 조용한 휴식을 즐기기에는 무리. 펜션 입장에서 돈이 되는 단체룸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시끄럽다는 경고 횟수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 홈페이지를 맹신하지 말자?

전국의 4천 여 개 펜션 중 3천 개가 넘는 곳이 홍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가 실제 모습과 같은지 여부를 판

단하는 몇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해두자.

- 펜션 외관과 같이 찍은 주변경관 사진이 없는 펜션은 눈발이나 대로변 혹은 숲 속 깊은 곳에 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사이트 메인화면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이나 바다 사진이 있는 경우는 달리 보여줄 주변경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합성한 경우가 많다.
- 유독 야경 사진이 많다면 낮 경관은 그리 만족할 만하지 않을 것이다.
- 방문 후기를 맹신하지 말자. 방문후기가 몇 개 없는 곳이라면 펜션업주의 자작극인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방문후기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글쓴이의 IP를 공개하는 펜션이라면 믿을만하다.
- 시즌에 맞지 않는 사진이 많은 곳은 게으른 펜션이다. 겨울철인데도 사이트 메인 화면에 여름 바다 풍경이 있다든지, 앨범 카테고리에도 시즌에 맞지 않는 사진만 있는 곳이라면 그리 만족할 만한 펜션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 부대시설을 꼼꼼히 체크하자!

에어컨의 유무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 단정 짓지 말고 반드시 체크하자. 식기와 침구류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바비큐 그릴의 경우 별도의 이용료가 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하자.

+ 요금을 깎아 주는 곳은 장사가 잘 안 되는 펜션이다?

스키장 인근의 펜션이 아니라면, 여름 휴가철이 최고의 성수기. 성수기에 요금을 흔쾌히 깎아 주는 펜션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자신보다 더 많이 할인받은 다른 손님을 만나더라도 하면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어떠한 경로로 예약을 하더라도 가격과 서비스가 일정한 곳을 선택해야 믿을만하다.

+ 'OO해수욕장과 3분 거리' 는 믿지 말자?

실제 해수욕장에서 3분 거리에 있는 펜션은 '해수욕장 바로 앞' 이라고 광고한다. 3분 거리, 5분 거리라면 분명 걸어서 15분~30분 걸리는 거리임에 틀림없다. '걸어서 몇 분' 이냐고 묻지 말고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라고 물어야 한다.

2011년, KT노동조합은 현장 조직 안정화와 고용안정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KT노동조합은 조직안정화를 기반으로 하여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KT노동조합의 사업 기조는

1. 열린 집행과 평등한 소통, 신뢰받는 집행부
2. 보편적 노동가치 쟁취
3. 조합간부의 진정성과 전문성 확립입니다.

2011년은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하락세가 두드러진 상황이며 노동계 역시 아직 채 정비되지 않은 타임오프 도입으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올해 복수노조허용을 앞두고 노동계의 기초변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KT는 조합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비전과 원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 등 올해의 노동환경이 순탄치는 않겠지만 10대 집행부 노동조합은 반드시 일치단결해 조합원들의 인간다운 업무환경 확보와 권익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올해 KT 노사관계 핵심 이슈는 단연 전임자임금지금지, 복수노조허용과 맞물린 단체교섭과 단협 갱신, 하반기 조직선거에 집중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실익과 소외계층까지 배려한 KT만의 차별화된 노동운동을 추구해 왔던 것처럼, 이에 걸 맞는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을 관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10대 집행부는 지난 2년 동안 현장을 찾아다니며 많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많은 변화와 개혁을 선도했다고 자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고충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2011년에는 개혁과 변화에 우선하여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응당한 제도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쟁취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2011년 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단체교섭 승리

- 조합원 업무환경 확보와 권익증진
- 2011년 임금협상 투쟁승리
- 감동복지 실현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대응

- 노동조합 자생적인 재정력 확보
- 거대 조직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 강구

■ 복수노조에 따른 대응

- 강력한 노동조합 조직 재편성
-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 조직구성

■ 10대 집행부의 새로운 노동운동 정착 및 계승

- HOST운동 정착의 해
 - 조합원이 주인되는 주체화
 - 타인을 배려하는 역할
 - 한 울타리의 집단적인 모체
- H2O 사업 정착의 해
 - 노동조합의 HOST운동과 회사의 OLLEH경영의 상생협력이라는 화학적 결합
 - H2O를 통한 대한민국 노사관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
- 11대 집행부로의 노동운동 정책계승

올해 KT 노사관계는 조합원 삶의 가치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 확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2011년 혼신을 다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조합원의 인간다운 삶 확보를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합원을 위한 희망의 KT,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 보편적 노동가치를 실현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전의 승패는 외부가 아닌 내부혁신과 조직역량 강화에 달려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10대 집행부는 현장 조직을 강화함은 물론 내부소통을 통한 조합의 자율적, 민주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새 모습을 기대하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희망을 향해, 승리를 향해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KT, 스마트한 미디어 라이프 시대를 열다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스마트TV 그리고 태블릿PC 등 다양한 스마트한 제품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내 S연구소는 최근 10년 후 미래주택의 진화 방향을 전망하며, 그 가운데 스마트 홈이 향후 주거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 동안 국내 주택기술의 진보가 외관과 평면, 설계 등 하드웨어에 걸친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진화는 첨단 과학·IT기술이 융합되는 주택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스마트홈(Smart Home) 시대가 열린다 옷 골라주는 거울, APT 단지내 우리 아이 위치정보까지 척척

모처럼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가는 주부 황수정(가명)씨가 외출 준비를 위해 안방 드레스룸 옷장 거울 앞에 선다. 드레스룸에 걸린 옷들이, 실제 옷 입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 둘 거울에 비춰진다. 오늘 황씨의 선택은 화사한 봄 날에 맞게 이 '매직 미러'가 추천한 노란색 반코트, 하트 모양의 백금 귀걸이도 매직 미러가 추천한 오늘의 패션 소품이다.

집 앞에서 놀겠다면 꼬마 녀석이 2시간이 다 되도록 들어오질 않는다. 다급해진 엄마가 거실 홈 네트워크 단말기로 다가가 입주자 위치 확인 버튼을 누른다. 잠시 후 단지 내 CCTV가 아이의 위치를 찾아 모니터에 띄워준다. 아이가 갖고 있던 스마트 키를 단지 내 설치된 위치인식 시스템이 파악해 해당 가구에 알려준 것이다.

상상 속의 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열지 않아도 보여주고, 나가보지 않아도 알려주고, 고민하지 않아도 선택해 준다. 단순 거주 공간에 머물던 종래의 '수동적' 주택 개념은 사라지고, 이젠 인간과 주거 공간이 상호 소통을 하는 '쌍방향' 커뮤니티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동력은 역시 첨단 정보통신(IT) 기술.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집 자체가 두뇌(지능)를 갖게 된다. 휴대폰에 '스마트 폰' 시대가 열렸다면, 주택에는 '스마트 홈'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다.

스마트홈 (Smart Home)이란?

직장의 혁신적인 지능형 환경을 가정으로 적용하여, 가정(Home)을 첨단 교육과 휴식의 공간이자, 또 하나의 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개념

세부내용

- 가상화로 2nd Office 환경 맥내 구현 등 새로운 가치 창조
- 글로벌콘텐츠(BBC, 글로벌영어 등), 맞춤형 교육(에듀팩) 등 배움터 제공
- 북카페, 가족앨범, FNS등 가족간 휴식처 제공

서비스내용

- 집안에서 '이동형 올레TV' 서비스를 구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들고 집안 곳곳에서 인터넷TV(IPTV)와 주문형비디오(VOD)를 기기별로 연동해 볼 수 있음
- '스마트홈 패드' 라는 태블릿PC를 통해 전자책(e북), 교육뮤음형상품, 디지털 가족앨범 등을 서비스를 집에서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N스크린(N-Screen), 새로운 미디어 라이프의 시작 TV로 보다가, PC로 보다가, 스마트폰으로 본다

퇴근길에 잠깐 짬을 내어 지하철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초능력자'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정거장에 내릴 즈음 잠깐 멈춰두고, 집에 들어와서는 저녁을 먹은 후 PC로 보던 영화를 계속 보다가, 아내가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간단한 청소를 마치고, 아가 보던 영화를 TV를 통해 봤던 부분부터 곧바로 이어서 보고 있던 차에 아이들 걱정에 TV를 끄고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에서 아이패드로 마지막까지 영화를 감상하고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다.

말 그대로 N개의 스크린으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다. 콘텐츠는 단지 영화, 음악,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뿐만 아니라 주소록,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와 문서작업까지도 아우른다.

이미 N스크린은 우리가 생활하는 패턴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할 정도로 알게 모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완벽한 N스크린은 아니지만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KT의 경우 N스크린 서비스에 있어 더 개선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했고, 현재 유클라우드와 Paran을 통해 Playy를 런칭했다. 또한 삼성이나 LG 역시 N스크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자사의 다양한 상품군과의 연계성을 높게 연결하고 있고, 이러한 N스크린이 앞으로 중요한 콘텐츠 시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기기간에 연계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앞으로 N스크린은 콘텐츠를 유통하고 사용자들이 즐기는데 있어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N스크린 (N-Screen)이란?

스마트폰, 태블릿PC, TV 등 단말기 및 운영체제(OS)와 관계없이 영화, 음악, 게임 등의 콘텐츠를 끊기지 않고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는 개념

세부내용

- 사용자가 구입한 콘텐츠가 단말기가 아닌 서버에 저장되면서 서비스가 연동됨
- 통신, 방송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수익으로 주목 받고 있음

서비스내용

- N스크린용 패드 출시 및 올레TV 플랫폼과 연동하여 올레TV의 콘텐츠를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확대 예정

미증유의 상황, 노동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11 대한민국 노동계 이슈

수년 전 한 노동운동가는 “철 지난 외투를 입은 채 완행열차에 타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고 노동계를 질타했다. 철 지난 외투는 폐쇄성을, 완행열차는 둔감함을, 졸음은 무기력함을 빚낸 표현이다. 그런 가운데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과 공공부문 선진화계획, 기간제법·파견법·근로기준법 유연화를 수미일관 밀어붙였다. 노동계는 내부의 비판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연타를 얻어맞았다. 사회적 대화는 사라졌다. 최근 동서발전과 대림자동차에서는 70~80년대 유행했던 ‘조합원 블랙리스트’ 까지 등장했다. 그야말로 미증유의 상황이다.

노정관계 이슈, 정책연대 파기·노조법 재개정

올해 노동계가 맞닥뜨린 이슈를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노동시장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자. 노정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 파기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파기는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이 본격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여지도 커진다. 그렇다고 노조법 재개정 논의가 생각만큼 탄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한국노총이 투쟁력 회복을 위해 선택한 정책연대 파기가 그만큼 대정부·대국회 개입력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 노조법에 대한 현장의 들끓는 불만에 힘입어 당선된 이용득 집행부가 어설프게 합의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노조법 재개정 투쟁은 올 한 해를 관통하는 노동계 투쟁의 꼭짓점에 있다. 서두를 사안도 아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다.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총선 전에는 정치권에 의해 노조법 재개정 여론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관계 이슈, 복수노조 허용·총연맹 분화

노사관계 핵심 이슈는 누가 뭐래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이다. 지금

도 기업별노조와 초기업노조, 인수합병(M&A) 기업의 복수노조 등 다양한 형태의 복수노조가 존재한다. 초기업노조는 97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돼 왔다. 관심을 끄는 것은 제3노총 출현 여부다. 제3노총 추진세력은 3~4년 전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2007년 새노총을 결성했다가 노사정이 노조법 3년 유예에 합의하자 자진 해산했다. 이들은 지난해 만든 새희망노동연대를 중심으로 재결집하고 있다. 올해 6월을 전후해 20만명 규모의 제3노총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분석도 나온다.

복수노조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업무 매뉴얼’(복수노조 매뉴얼)이 노사 교섭의 준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허점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에 이중가입한 조합원이 어떤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합의했을 때 찬반투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분리된 교섭단위를 어떻게 통합하는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노사, 노노 간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동시장 이슈, 불법파견·비정규직 조직화

노동시장 이슈는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과 흥익대 청소·용

역 노동자들의 점거농성 등 비정규직 투쟁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고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같은해 11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현대차 아산공장 대부분의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사용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와 같은 컨베이어 생산공정이 다른 완성차업체와 제조업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사내하청 불법파견, 정규직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반란’도 눈에 띈다. 흥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170여명이 올해 초 느닷없이 계약해지됐다. 이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대학 본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에 걸쳐 15만명에 육박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1만여 명의 학교비정규직이 조직화돼 있다. 이들은 2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 밖의 이슈와 노동계 대응

미시적인 쟁점도 만만치 않다. 3개 노조가 통합한 뒤 설립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교조의 움직임

이 눈에 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의혹을 둘러싼 방송사노조의 반발과 정부의 유연화 전략,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안전보건·근로기준 지방이양 추진도 노동계에 적지 않은 고민거리를 던져 줄 사안이다.

대표적인 내셔널센터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권 내내 변변한 총파업 한번 하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정책연대의 빔’에 걸려 힘을 쓰지 못했다. 지난해 1월 김영훈 민주노총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올해 1월 이용득 한국노총 집행부가 당선됐을 때 현장의 요구는 한결같았다. 상층 중심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민첩함을 갖추고, 공세적인 대응을 하라는 것이었다. 철 지난 외투를 벗고, 완행열차 그만 타고, 줄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노동운동은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다. 87년 체제(노동자 대투쟁)와 97년 체제(외환위기)를 거쳐 2010년 체제(타임오프와 복수노조)에 접어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집중과 분산’이 필요한 때다. 노조가 조합원 이해를 대변하는 ‘갑옷’을 입을 것인지,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칼’을 들 것인지, 계급투쟁의 ‘학교’ 역할을 할 것인지는 조합원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매일노동뉴스 박운 국장

아이패드, 태블릿 PC의 성공적인 신호탄!

아이패드의 등장으로 변화되는 홈 컴퓨팅의 미래!

우려와 기대 속에서 아이패드가 등장했다. 스티브잡스의 아이패드 프레젠테이션 장면이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패드가 아이폰 여섯 대를 합친 것에 불과하다며 조롱 했다. 아이폰의 업그레이드, 또는 대형 버전이라는 폄하에도 불구하고 이 매력적이고 새로운 PC의 등장을 외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 출시 전부터 관심을 모으더니, 지난해 전 세계 아이패드 누적 판매 대수가 1,00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태블릿PC 시장을 뜨겁게 달군 아이패드의 매력은 뭘까? 아이패드만이 가진, 반드시 아이패드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2010년, 아이패드의 등장과 함께 태블릿PC의 화려한 부활이 시작됐다. 아이패드 이전의 태블릿PC는 천덕꾸러기 신세나 다름없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컴퓨터의 중간자적 성격은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작용했다. 소비자들은 어중간한 태블릿PC보다 스마트폰이나 저가형 넷북을 선택했고 태블릿PC는 실패한 개인 가전으로 전락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아이팟과 아이폰으로 성공을 거둔 애플은 마침내 아이패드를 탄생시켰다. 태블릿PC의 성공적인 시장복귀가 이루어진 셈이다. PC 업계 또한 아이패드를 겨냥한 태블릿PC들을 속속 출시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딱 맞는 제품을 고르는 일만 남았다.

아이패드, 너는 누구냐?

아이패드의 구성, 사용방법은 아이폰과 유사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이폰의 6배 사이즈에 카메라와 전화기능이 빠졌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패드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와 무한 확장성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해답은 간단하다.

사이즈는 커졌지만 여전히 간편한 휴대성을 자랑한다. 특히 애플 특유의 단순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독창적인 기술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활용도를 높였다. 커다란 서류 뭉치나 두꺼운 책 수십 권을 아이패드 하나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페이지(Pages)

'페이지(Pages)'는 MS Office의 워드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문서 작성 기능을 제공한다. 기본 제공되는 레이아웃 도구를 이용하면 간단한 터치만으로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페이지에서 작성한 문서는 MS 워드 파일로도 변환이 가능하고 PDF 문서와 공유할 수도 있다. 인터넷에 업로드도 가능하고 무선 프린터 기능을 이용해 출력할 수도 있다. / \$9.99

키노트(Keynote)

'키노트(Keynote)'는 쉽고 간편한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MS Office의 파워포인트 기능과 유사하다.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용 문서를 작성하고 발표할 수 있다. 특히 화려한 애니메이션 기능이 강점이다. 종이 서류의 가독성에 뒤지지 않는 9.7인치 대형화면으로 선명하게 디스플레이 된다. /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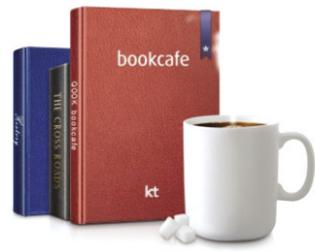
• 페이지



• 키노트 •

QOOK 북카페

아이패드에서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전자책 기능이다. 아이패드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스티브 잡스가 e-book 시장을 겨냥한 작품을 내놓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아마존 킨들(Kindle)이 주도하는 e-book 시장에 재편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속속 제기됐다. 아이패드는 iBook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QOOK 북카페 for iPad'가 제격. iBooks와 비슷한 인터페이스로 책 커버가 한 눈에 표시되어 선택이 쉽고, 책갈피 기능으로 읽던 부분을 쉽게 찾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수십 권의 책을 아이패드에 하나에 넣고 다닐 수 있는데, 여행이나 이동 중에 쉽고 편리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특히 '쿡북카페팩'은 아이패드 전용 월정액 콘텐츠로 다양한 분야의 매거진, 신문, 어린이 동화, 도서 요약본이 제공된다. 쿡북카페팩(통합팩)과 분야별 패키지 구성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쿡인터넷 가입자는 25%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 무료



• QOOK 북카페

유패드(UPAD)

스프링패드(Springpad)

'키노트'와 '페이지'의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간단한 문서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유패드(UPAD)'를 추천한다. 정식 버전은 \$4.99, LITE 버전은 무료다. 섬세한 터치를 이용해 노트처럼 간단한 필기를 할 수 있고 PDF 문서 저장도 가능하다. 더 간편한 메모 애플리케이션을 찾다면 '스프링패드(Springpad)'도 좋다. 북마크 기능부터, 메모를 쓰고 주소를 동기화하고 해야 할 목록을 만들고 지워나갈 수 있다. 가게와 레스토랑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구입 예정인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해 놓을 수도 있다. 개인용 다이어리나 수첩을 대체할 만하다.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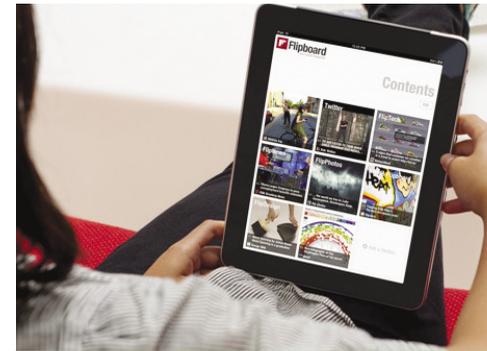
유패드 •



iP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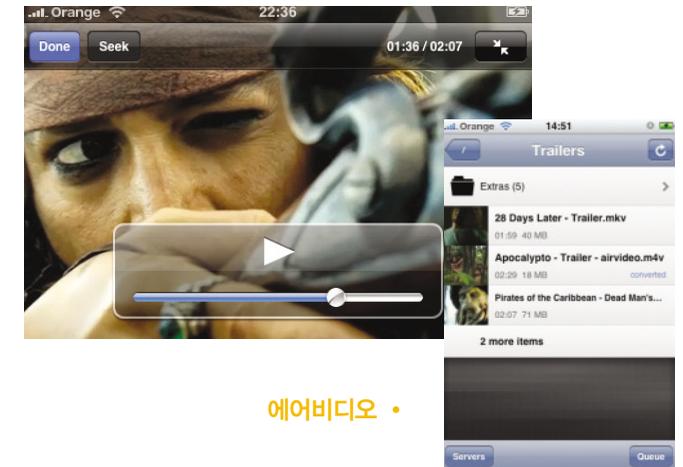
플립보드(Flipboard)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개인의 특성과 취향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아이패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플립보드(Flipboard)'는 신문의 미래상이라고 말하는 개인 맞춤형 소셜 매거진이다. 뉴스와 사진,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올라오는 친구의 소식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실제 매거진과 똑같은 레이아웃을 통해 새로운 소식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종이처럼 책장을 넘기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 흥미 있는 기사와 사진을 공유하고 댓글을 달 수도 있다. / 무료



에어비디오(Air Video) 리모트엑스(Remote X)

'에어비디오(Air Video)'는 데스크톱에 있는 영화나 동영상 파일을 일일이 옮기기 귀찮았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다. 에어비디오를 이용하면 집안의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을 아이패드에서 볼 수 있다. 일종의 원격조종인데, 데스크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하지도 않는 컴퓨터를 하루 종일 켜 놓을 수는 없는 노릇. 이럴 땐 '리모트엑스(Remote X)'를 이용하면 된다. 밖에서도 원격조종으로 컴퓨터를 끄거나 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 무료 (유료버전은 각각 \$2.99, \$9.99)



에어비디오 •

조합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2011년 KT복지제도!

2011년 KT의 복지제도는 많은 부분이 개선·향상되었다.

노동조합은 지난 2010년 단체교섭의 중점을 조합의 역할과 향후 방향 및 조합원의 임금수준유지, 복지증진에 맞췄고 ▲주택자금 등 대부금 이자율 3→2% 인하 ▲중학교 3학년(만15세) 자녀 10만원 지원 등 교육보조비 확대 ▲단체보험 보장수준 상향조정 및 의료비 확대 ▲선택적 복지포인트 매년 100만원 상당 추가 ▲1인당 300만원 규모 상조(경조)서비스 지원 ▲복지기금신청 기준 완화 및 개선 등을 확충했다.

KT복지제도 주요 항목과 2011년 개정된 쟁점 사항을 살펴본다.



복지기금 지급내역

구분 및 대상			지급액
경조금	축의금	결혼 사원	50만원
		자녀	30만원
		회갑/칠순(택일)	직계존속(외가제외), 배우자 부모(회갑 만 60세, 칠순 만69세)
	출산	사원/배우자	20만원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이상	100만원
조위금	사망	본인사망(제25조 제2항에 의한 사망)	10,000만원
		교통사고 사망	5,000만원
		※ 배우자	10,000만원 (단체보험) 200만원(자살)
		직계존속(외가제외), 비속 / 배우자 부모	50만원
재난 구호금	주택파손 (자가)	완전파손	1,000만원
		1/2 이상 파손	700만원
		1/3 이상 파손	350만원
	주택파손 (전세)	완전 파손	200만원
		1/2 이상 파손	150만원
		1/3 이상 파손	100만원
주택침수 (본인거주)	완전 침수	300만원	
	부분 침수	200만원	
주택자금 대부		주택마련자금 용자(이자율2%)	5,000만원 한도
		주택임차자금 용자(이자율2%)	3,000만원 한도
생활안정자금 대부		간급가계자금(이자율2%)	2,000만원 한도
대학생자녀 장학금		사원(등기이사, 무급휴직자 제외) 대학생자녀	납부액의 75%

구분 및 대상		지급액
대학생자녀 장학금	- 자녀 1인당 최대 8학기, 사원1인당 최대16학기 - 고등교육법 적용, 외국대학, 기타 인정대학	납부액의 75%
의료비	사원 및 사원 건강보험에 등록된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임원제외) - 사원본인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외 - 발생월 초일~말일 본인부담액 (가족포함) 3만원 초과분	해당금액 (연간 1,000만원)
상조서비스(예정)	1인당 300만원 규모 상당 상조(경조)서비스 (2011년 상반기 예정)	희망자에 한해 10년간 회사 12,500원 지원, 직원 월 12,500원 부담
중학생교육보조비	중학교 3학년(만15세 기준) 자녀를 둔 사원	1인당 월 10만원
초등학생교육보조비	초등학생 6학년 자녀를 둔 사원(만 12세)	1인당 월 10만원
유아교육 보조비	취학 전 1년(만6세) 자녀	1인당 월 10만원
기념품비 및 복지포인트	복지카드에 포인트로 100만원지급 (복지포인트 60만원 이하 직원)	기존 기념품비와 함께 1월 6일 130만 point, 여름휴가 시 30만 point

※ 반환 회수 및 수해 제한사항

허위, 부당하게 기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위반 시 2배 변상)

2011 복지기금 운영세칙 개정

제도개선

구분	구분	기존	개정
경조금	지원시기	• 회갑/칠순 : 실제 기념일	• 회갑 만60세, 칠순 만69세
주택자금 대부	신청자격	• 기존주택을 처분(무주택) 후 신청 • 배우자명의 주택구입 불인정	• 개월 이내 처분시 인정 • 배우자 명의 주택 인정 - 보증보험 가입
	선정점수	• 근속(6~4점), 무주택기간(6~25점), 부양가족(2~10점) • 수혜실적(3천초과1~미수혜10점) • 가점부여 : 표창 등 1~3점	• 변동 없음 - 4천초과2~미수혜16점 - 추가 : 자녀 3인이상 +3점
생활안정 자금대부	신청자격	• 정년퇴직 5년이하 제외	• 자격인정(보증보험 가입)
	선정점수 우선추천	• 사유별 : 10점~15점 • 특성별(자녀수, 수혜실적, 표창 등) : 1점~5점 • 기금대부운영위원회 "우선 추천"	• 사유별 : 변동없음 • 특성별 : 주택과 동일 ※ 부양가족, 미수혜자 우대 • 폐지(기존 모호)
장학금 지급	지원방법	• 본인 선납부 후 신청	• 회사 선 지급 후 연말정산
	중복학기	• 동일 학년/학기 불인정	• 인정(1인당 8학기 내)
	해외대학	• 연세대 유사학과 등록금의 75% 이내	• 언더우드국제학부를 제외한 계열의 75% 이내
교육보조	지급시기 [신설]	• 유아(취학직전), 초등(6학년)	• 유아(만6세), 초등(만12세) • 중3(만15세)자녀교육비 - 월10만원
의료비	[신설]		• 입원의료비 단체보험 가입 - 본인 입원 의료비는 보험 처리
선택적 복지	[신설]		• 복지카드로 사원 1인당 100만원 포인트 추가(복지포인트 60만원 이하 직원)

서류간소화

구분	구분	기존	개정
경조금	사유발생 증빙서	• 회갑 / 칠순 기념행사사진, 혼인신고서, 출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제출	• 생략 - e-HR, 게시판, 복무신청 등 확인(제출생략)
주택자금 대부	무주택기간 증빙자료	• 주소지별 건물등기부등본, 과세증명서 제출	• 과세증명서 생략 - 무주택기간동안 건물 등기부 등본만 제출
생활안정 자금대부	지출 증빙서	• 지출증빙서류 - 의료비(요양포함) : 납입액 100% - 직계사망 : 납입액 100% - 결혼 : 납입액 100%	• 지출증빙 금액 축소 : 50% - 납입영수증 금액의 2배 지급
장학금 지급	등록금납부 영수증	• 건별 납부영수증 원본	• 납부고지서 사본 제출 - 연말 납입증명서 1회 제출
교육보조 유아 / 초등 / 중등	증명서	• 교육비 납부영수증, 재학(원)증명서	• 생략

공통사항

구분	구분	기존	개정
대부이자율			• [인하] 3% ▶ 2%
대부금지원		• 2개월마다(매월 25일)	• 1개월(매월 말일)
기타복지(경조금 등)		• 1개월(매월 25일)	• 1주일(매주 금요일)
기금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지원대상(가족)확인		•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생략(인사시스템 기준)

직장 단체보험

보장항목	보장금액		지급방식	추진방법
	직원본인	배우자		
재해사망	10,000만원	10,000만원	정액 지급	단체보험
재해장해	2,500만원	2,500만원	등급별 차등	
암진단	1,500만원	1,500만원	정액 지급	
일반사망	10,000만원	10,000만원	정액 지급	직원 : 복지기금 배우자 : 단체보험
교통사고	5,000만원	-		
입원의료	1,000만원	-		
입원일당	2만 5천원 ~ 3만원	-		연간 180일 한

의료비 지원

구분	구분	기존
대상		본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국민건강보험에 등재된 자)
구비서류		1. 병원에서 발급된 전산처리 영수증 2.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구입한 약값 전산처리 영수증
지급범위		1. 한도액 : 1,000만원/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 가족당 본인 부담금 - 월 3만원 초과 시 그 초과액 지급(급여) - MRI, CT 본인부담액의 30% 지급(비급여) 2. 장기입원의 경우 한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종료월 계산 - 장기 입원 시 월별 영수증 구분 제출 불가에 따른 보완사항 - [2011 개정] 입원의료비 연간 1천만원 한도 지원(직원 본인) 또는 입원일당제 선택 : 일 2만5천원 ~ 3만원(연간 180일 한)
신청방법		1. 인사시스템 본인 입력(개인별 지급청구서 및 진료영수증 제출) 2. 지급일 : 당월 급여일 별도계좌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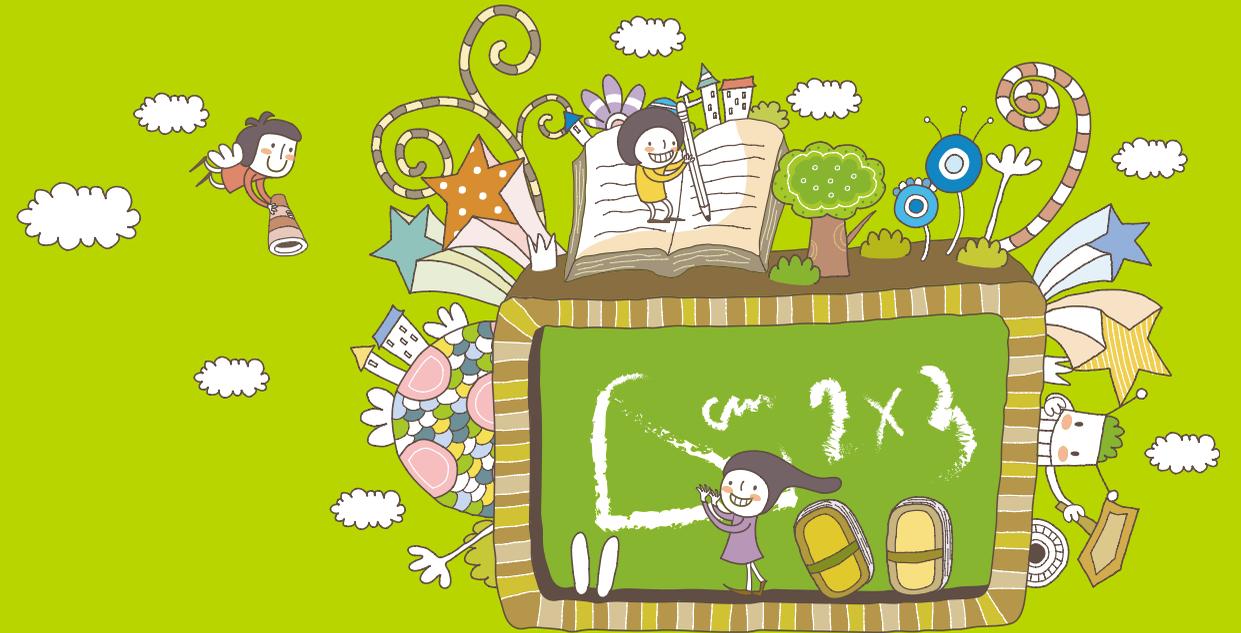
결혼기념일 및 장기근속자 생활입소

구분	결혼기념일	장기근속자
자급내역	1. 결혼기념일 10년, 20년, 30년	1. 장기근속 20년, 30년, 40년 근속
	2. 위로출장 처리 ※ 교육처리 ※ 수련관 생활입소(2박3일) ※ 본인 및 배우자 여비지급	2. 위로출장 처리 ※ 수련관 생활입소 (2박3일) ※ 본인가족 5인 이내 여비지급
	3. 생활입소 신청기한 - 생활입소 기념일이 속한 월로부터 1년	3. 보조금 지급 ※ 20년 - 70만원 ※ 30년 - 100만원 ※ 40년 - 150만원
		4. 공로패 수여
		5. 생활입소 신청기한 - 기념월 이후 1년

청원휴가 대상일수

구분	대상	일 수	비고
결혼	• 본인	7	
	• 자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선박으로만 이동가능 도서지역
회갑 칠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선택 1
사망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승중상	6	
	• 자녀 : 조부모(여직원시부모 포함)	5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	3	
	• 처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백숙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배우자	1	선박으로만 이동가능 도서지역 2일
	• 본인의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외숙부모	1	선박으로만 이동가능 도서지역 2일
탈상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1	선박으로만 이동가능 도서지역
	• 조부모(여직원의 시부모 포함)	1	선박으로만 이동가능 도서지역
출산	• 배우자(처)	3	
	• 여직원 출산 전후(임신 8개월 이후 유산)	90	휴일포함
	• 임신 4개월 이후 유산	45	
	• 임신 3개월 이후 유산	3	
	• 태아검진 휴가	월 1일	
재해	• 수·화재 등 중대 재해	3	

※ 이 밖에 △대학생자녀 장학금 △중고생자녀 학자금 △유·초등·중등자녀 교육보조비 지원 △주택자금 대부제도 △생활안정자금대부제도 △기념품비 지급 △국내 이전비 지급 △통신비 지원 △급식통근보조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장제용품 프로세스 개선 △리프레쉬 휴직 및 창업지원제도 휴직제도 △연차휴가 등 자세한 복지 내역은 노동조합 홈페이지(www.kttu.or.kr)·자료실·문서정책을 참고하세요.



예비 중·고등학생 자녀 선행학습 접수

무료인터넷교육 대상 확대

노동조합은 지난해 3월부터 'HOST운동'의 일환으로 임직원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무료 인터넷교육을 접수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 동안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임직원과 선행학습이 필요한 예비 중학생 및 예비 고등학생 자녀를 둔 임직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무료 인터넷교육을 추가로 접수합니다.

접수기간

2011년 2월 7일(월) ~ 2월 28일(월)

이용절차

1.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http://kttu.or.kr>)
2. 상단우측메뉴 '행복나눔' - '무료인터넷교육' 클릭
3. 안내 화면 보기 '관련내용 확인'
4. 화면 아래 쪽 각각 해당분야 '중학생·고등학생 선택 신청하기' 클릭
5. KT 직원 인증 '사원정보 확인'
6. 자녀정보 등록 '이용자 ID 신청', '연락처 정보', '학교 정보' 등

학습사이트 주소

중 학생 : <http://7wisehome.kr> (☎ 1577-7111)

고등학생 : <http://ktedui.com> (☎ 1577-8558)

Voices of Readers

독자엽서 당첨자

- | | | | |
|-----|---------------------|-----|--------------------------|
| 이영루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남부NSC | 강은정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
| 홍성찬 | 대전 중구 문화동 KT대전망운용국 | 조혜성 | 서울 용산구 원효3가 국제전화국 |
| 문종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 이건수 | 전북 익산시 부송동 KT익산지사 |
| 신성철 |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KT송정사옥 | 조명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KT올레캠퍼스 |
| 김은경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KT수지지사 | 조현정 | 서울 서초구 서초2동 |
| 홍훈표 | 충북 제천시 명동 | 김미형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
| 이상택 |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KT원주지사 | 송부식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남부NSC |
| 한창곤 | 서울 서초구 방배3동 KT서초지사 | 정성균 | 전북 전주시 삼천동1가 |
| 송홍재 |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KT원주지사 | 소성정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KT전북고객신용팀 |
| 도진욱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 강희순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충북고객신용팀 |



생각하는 게임 '스도쿠'

스도쿠란 가로, 세로 각각 9칸씩 총 81칸으로 이뤄진 정사각형입니다.
다음 3가지의 규칙에 따라 가로와 세로 줄에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적어 넣어주세요.

규칙 1)
9칸의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고 한 번씩 사용되어야 합니다.

규칙 2)
9칸의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고 한 번씩 사용되어야 합니다.

규칙 3)
3x3칸으로 된 작은 상자(총9개)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고 한 번씩 사용되어야 합니다

6		8		2		1		
4		9				8	2	7
	3		6		9		4	
5		2		4	3		7	
9			2		7			1
	8		9			4		2
	2		4		6		1	
3			1	8		6		4
1		4		9		5		

Sudoku Puzzle

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지원합니다

KT노동조합은 펴 Vol.3호에 KT공인중개사 동우회 퇴직사우 한경덕 공인중개사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자 KT공인중개사 동우회(KTland)와 함께 외부 공인중개사 전문교육기관과의 제휴를 통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관심 있는 조합원에게 아래와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11년 22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지원

이러닝 과정 수강은 전지역, 누구나(가족, 퇴직사우 등) 가능하나, 특별히 재직자를 위한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기간 | 2011년 신청부터 ~ 10월까지
- 지원대상 | KT 재직자 (만 40세 이상)
- 지원내용 | 평일 야간반(환급 과정) 또는 주말반(비환급 과정) 개설 운영(2개월 과정)
 - 평일 야간반(환급 과정) : 1, 2차 모두 운영
 - 주말반(비환급 과정) : 1차만 운영
- 지원혜택
 - KT 재직자만을 위한 주말반(비 환급과정) 개설 운영 : 교육장소별 30명 이상 신청 시
 - 교재비 50% 할인 : 기본서, 문제집, 요약집(약 188,000원 할인)
- 지원조건
 - 평일 야간반(환급 과정) 2개월 단위로 상시 운영
 - 주말 야간반(비환급 과정) 30명 이상 수강 신청시 개설 운영(본원 및 분원 소재지역): 1차 대비반
- 제휴학원 | 한국법학원 본원(노량진), 전국 16개 분원(경기남부권 : 안산, 성남, 수원)
- 신청문의 | KTland 동우회 오재현 (010-6656-2652)
- 관련사이트 | <http://club.paran.com/ktland>



퍼스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한경덕 (퇴직사우)